

1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795.46	↑ 코스닥	828.72
	(-28.89)		(+6.24)
↑ 금리 (미국 3년)	3.074	↑ 환율 (원/달러)	1390.20
	(+0.016)		(+8.50)

신흥재벌이 걸어온 길
서장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03



中 견제, 韓 배터리 수혜 vs IRA 폐지, 혜택 축소 우려

〈인플레이션 감축법〉

‘트럼프 2.0’ 산업계 촉각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중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거론되며 주요 산업별로 다양한 영향이 예측된다. 가장 큰 파급을 받을 것으로는 추측되는 분야는 이차전지·자동차 업계다. 〈관련기사 4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국내 기업에 끼칠 변화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제2기 집권 청사진’에서 1기 정부 때 이상의 미국 중심의 고강도 대외·산업·통상 정책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2기 IRA 지원 축소 가능성
車 산업엔 오히려 긍정적 작용 시각”

‘보호무역’ 강화, 관세 확대 거론
중국산 200%… 반사의 목소리

트럼프 당선 시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이차전지와 전기차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더욱 거세지면, 중국이 핵심 전략 자산으로 내세우는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이 타격을 입을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에 약화된 실적을 보완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는 IRA 법안이 폐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IRA 법안이 폐기되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양당에서 압도적인 좌석을 가져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또한 미국이 전기차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니지 못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 정책을 폐기하는 힘들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IRA 혜택 축소를 시행할 가능성은 높아, 이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따른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정부 역시 배터리 요건 시행 지침,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드 등 법 발효 이후 행정부의 별도 시행 지침으로 IRA에 변화를 유발한 전례가 있다”며 “트럼프 측이 정책 효과에 비해 정부 재정 투입 규모가 너무 과도하다는 점을 이유로 IRA 폐지를 주장하는 만큼 트럼프 2기는 행정명령을 통해 IRA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동차 산업은 IRA 축소가 오히려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는 부분은 한국 자동차 기업들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쟁력도 높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 확대도 함께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소 60%에서 최대 2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중국산 부품이 한국산으로 대체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면에 계속) / 저현정 기자 hyeon@metrosoul.co.kr



태극기 휘날리며… 韓 선수단, 파리 입성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기수 구분길, 정강선 선수단장을 비롯한 선수단 본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서비스 분산·이중화로 제2의 IT대란 막아야

‘IT 대란’ 초연결 사회 위험성 드러나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로 세계 원도기반 기기 850만대 영향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관리 부실 사례로 기록될 글로벌 IT 대란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며 하나로 묶인 초연결 사회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해당 기술의 사소한 오류조차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산과 이중화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세계 곳곳 공항과 병원·기업·기관들의 업무용 PC를 마비시킨 원인이 보안 서비스의 회사의 업데이트 파일 오류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클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보안 회사의 제품 업데이트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MS) 원도 파일과 충돌했던 것.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사태로 전 세계 원도기반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았다고 MS 측이 20일(현지시각) 밝혔다.

IT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세계 유명 보안 회사인데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고객사의 운영체제(OS)와의 충돌 여부를 테스트하는 과

정이 부실했다는 설명이다.

한번 설치되면 전체 고객사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SW 배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SW 개발부터 배포 방식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도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았다. 결항은 없었으나 ▲제주항공 47편 ▲이스타항공 26편 ▲에어프레미아 2편 등 항공기 지연이 발생했다. 세 항공사 외의 국적사들은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4면에 계속〉

/박대성 기자 iunms@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NC) 마지막 날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 수락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스

경기도 ‘7800억 투자’ K-컬처밸리 백지화… 시민들 분노

경기도가 지난 1일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복합개발단지 사업협약 해제를 발표하면서 파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기 북부의 최대 개발사업을 백지화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경기도는 두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며 성난 민심을 진화하려 나섰다. 기대가 컸던만큼 거센 여론을 진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는 2015년 등록된 법인 형태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민관합동 공모사업은 통상 PFV(프로젝트 금융회사) 및 SPC(특수목적회사)가 주체가 되지만, CJ라이브시티는 사업협약 직후 CJ그룹의 신규 계열사 법인으로 설립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전 세계 1위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 AEG로부터 투

자를 유치했다. AEG는 미국 크립토타컴 아레나, 영국 O2아레나 등의 운영사로, 아레나 및 컨벤션 센터 등 주요 복합문화시설의 개발, 임대, 시설 운영 등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글로벌 전문 기업이다.

AEG는 2019년, CJ와 첫 MOU 체결 후부터 한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대통령실, 김 여사 검찰 출석에 “필요 시 법률대리인이 입장 밝힐 것” /사진 뉴스
▲ 나경원 “파트 투쟁, 했어야 할 일…한동훈, 투쟁한 동지를 범법자 만들어”

▲ 오세훈 “이재명 같은 정치인, 웬만한 부패해도 그냥 넘어가”
▲ 북한, 울들어 9번째 오물풍선 살포…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



▲ 민주당대표 3차 경선도 이재명 90% 압승…최고위원 정봉주 1위 /사진 뉴스
▲ 원희룡 “한동훈, 정치 기본은 돼 있으나…한 불가론 퍼지는 중”

국민청원 5만명... 車 급발진 ‘입증 책임’ 제조사로 바뀔까

‘도현이법’ 국회 결실 관심

현행은 피해자가 ‘결함 증명’ 원칙 허영·권성동 의원 등 관련법 발의 법 추진엔 산업계 부담·반발 예상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고(故) 이도현 군 가족들이 올린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민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어서 종료됨에 따라, 차량 급발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도현이법’이 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사고 의심 건수는 2015년 50건, 2016년 57건, 2017년 58건, 2018년 39건, 2019년 33건, 2020년 25건, 2021년 39건, 2022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급발진 주장 차량이 도보에서 있던 행인 9명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급발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모습.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증하면서 국가가 관련 법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시스

현행법에 따르면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상 피해자가 결함의 존재 등의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에 담긴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일정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증명하는 과정이 어

렵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급발진을 주장하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제조사는 소의 제기 전까지 결함과 관련한 내부 문서 및 자료를 법정 외에서 피해자에게 제출하고 내부 직원들의 법정외의 신문과 녹취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에 유럽연합 수준의 EDR(사고기

록장치)를 장착하는 조항을 넣었다.

제22대 국회에선 급발진과 관련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청원 내용과 가장 비슷한 법안은 허영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안이다.

허영 의원은 결함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허 의원은 제조사의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채현일 의원은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동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다만, 이른바 ‘도현이법’에서 담고 있는 입증 책임 전환과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이 추진되면 산업계의 부담과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가 합심해 도현이법을 발

의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자세를 보인 바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가 낸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손해배상의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공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제조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EU는 피해자의 자료 요청권을 강화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보호의 권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제도의 남용으로 인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도 형평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제조물 책임법은 자동차 외에도 모든 산업 분야와 다양한 규모의 제조업자에 모두 적용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향후 개정 방향 논의에 앞서 그 산업의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이해와 검토도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1면 ‘中 견제, 韓 배터리...’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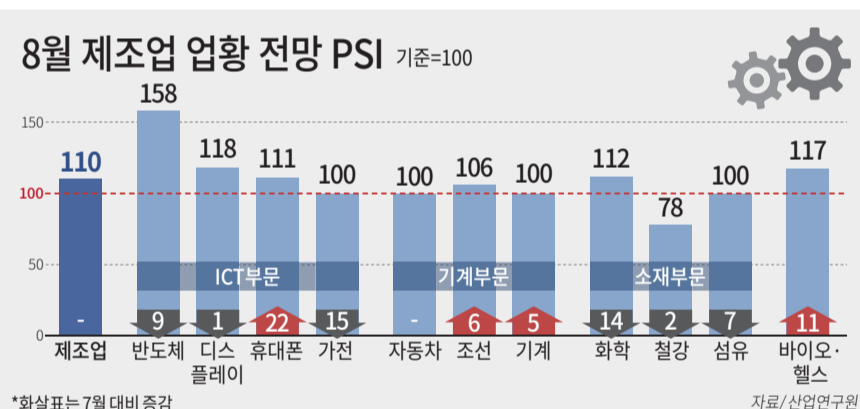
반도체·조선 등 주도... 내달 제조업 경기 ‘긍정적’

산업연구원, 8월 업황 전망 PSI 7월 110기록, 8개월째 기준치 상회 내수 107 상승전환, 수출 119 유지

반도체 업황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8월 제조업 경기도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조선, 화학, 바이오·헬스 업종은 긍정적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철강 업종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조사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국내 주요 업종 전문가 137명을 대상으로 191개 업종에 대해 7월 8일 ~ 12일까지 ‘전문가 서베이 지수(PSI: Professional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PSI 항목별 응답 결과는 0~200의 범위로 변환돼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전월 대비 증가(개선) 의견



이, 반대로 0에 근접할수록 감소(악화) 의견이 각각 많음을 의미한다.

8월 국내 제조업 업황 전망 PSI는 전월과 동일한 110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기준치(100)를 상회했다. 내수(107)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고, 수출(119) 역시 전월 수준을 유지한 반면, 생산(110)이 3개월 연속 하락하

면서 둔화가 예상된다.

업종 유형별 8월 전망 PSI는 ICT(정보통신기술, 124) 부문이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기계(102) 부문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소재 부문(100)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기준치에 그치는 수준이다.

세부 업종별 8월 전망 PSI는 반도체

(158)가 전월(167)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돌며 업황 개선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플레이(118), 휴대폰(111), 조선(106), 화학(112), 바이오·헬스(117) 등 업종이 기준치를 상회했으나, 철강(78) 업종만 유일하게 기준치에 크게 뒤처지며 업황 부진이 예상된다.

한편, 7월 제조업 업황 현황 PSI는 113을 기록하며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는 가운데 전월 대비로도 상승 전환했다. 내수(108)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상회하고, 수출(120) 역시 기준치를 상당폭 상회하는 데다, 생산(119)도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업종 유형별 7월 현황 PSI는 ICT(131) 부문과 소재(105) 부문에서 기준치를 여전히 상회하나, 기계(95) 부문은 1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치 밑으로 떨어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철강업계

中 ‘덤핑’ 공세 강화 국내 가격하락 우려

관세가 확대되면 반도체업계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지난 2017년 70.2% 이후 하락 추세이지만 지난해 기준 55.4%로 여전히 압도적 1위다.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이 커지면 중국산 IT 기기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국내 주요 기업들이 만드는 중간재인 메모리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중국 배제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바도 있다.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낸드플래시 등의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국내 기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후발 주자인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에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철강업계는 관세 폭탄 영향으로 중국의 ‘덤핑’ 공세가 강화할 것이라는 걱정의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 내 부동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올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운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국내 철강사에 대한 가격 하락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다.

조선업계는 수혜 업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화석연료 등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제조업 부흥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선, 액화석유가스(LPG)선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CJ라이브시티, AEG 투자유치 등 사업의지 분명

>> 1면 ‘경기도, 7800억 투자...’서 계속

지난 해 4월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아레나 건축 설계 및 시설, 활용 계획 등 실질적인 운영 기획을 진행해왔고, 최근까지도 CJ라이브시티와 아레나 JV(합작법인) 설립 및 고양 시내 한국 사무소 개설도 준비 중이었다.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란 평가다.

경기도는 사업협약 해제의 원인이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전채 투자비 약 2조원 중 약 40%에 달하

는 7800억원의 비용이 투자됐다. 토지 매수비 및 내년도 토지 대부료도 모두 완납한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0억원의 CP(기업어음)를 발행했고, ENM 신용평가등급 역시 A1으로 우량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앞서 투자 의향을 밝힌 총 5개의 대형 금융투자기관 역시 PF조정위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전제로 PF 실행을 앞두고 있었다.

아레나가 조성되는 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땅이 전력 공급 불가로 개발이 안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주장하는 8

년간 3%의 공정률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CJ라이브시티에 따르면, 아레나를 앵커시설로 하는 현재의 사업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이후로 사업은 계획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계획된 공기는 총 36개월로 2021년 10월 착공 후 한전의 전력공급 불가 통보가 불가항력적 대의 변수로 문제가 되어 중단되기 전까지 약 17%의 공정률로 공사는 1년 반 동안 순탄하게 진행됐다.

CJ라이브시티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업 계획 변경의 일환인 사업기간 연장 협의에 성실하게 임해 온 가운데, 경기도는 사업 만료를 2주일 앞두고 돌

연 사업기간 연장의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전력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 부과 조건 아래 아레나 공사의 재개 ▲사업 정상화와는 무관한 수백억원 대의 협약이행보증금 2배 증액 등이 골자다.

이에 CJ라이브시티는 ▲상호간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기간 연장을 거듭 건의 ▲사업 정상화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안 수용 여부에 관한 의견 청취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사업기간 경과’가 아닌 ‘사업 지연/사업 추진 실적 저조’를 사유로 내세우며 사업 기간 만료일 경과에 앞서 6월 28일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 또 사업 해제의 귀책을 CJ라이브시티로 내세우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차현정 기자 hyeon@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자사주 매각 대신 글로벌 M&A... “한다면 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⑨ 신약 개발

지난해 미국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셀트리온의 ‘집펜트라’(렘시마SC의 미국 제품명)는 이르면 내년 글로벌 매출액 1조원을 돌파하는 첫 토종 ‘블록버스터’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렘시마SC는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의 피하주사(SC) 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오리지널의약품 매출 확대 방침
유럽 등 제약바이오기업 M&A 검토
“3개 기업 후보, 비용 1조원대 예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로 글로벌 시장을 재패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복제약이 아닌 신약 개발사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지난해 2년만에 경영에 복귀한 서 회장은 ‘렘시마SC’를 필두로 오는 2030년까지 오리지널의약품 매출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렘시마SC에 대한 신약 허가 승인이 이뤄지면 셀트리온은 신약을 출시한 회사가 된다”며 “2024년부터 이중항체 플랫폼 등 신약을 비롯해 6개 파이프라인이 임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항암제 파이프라인 4개 등 총 10개의 신약 임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약 개발을 위해 인수합병(M&A)과 투자에도 적극 나선다. 셀트리온은 영국 기업 지분투자에 이어 올해도 유럽 제약바이오기업의 M&A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망 바이오벤처 투자를 통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셀트리온그룹은 코로나19가 대유행하던 지난 2021년 전사 인력을 투입, 코로나19 치료제 ‘벡키로나주’를 1년 만에 개발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한다면 하는’ 서 회장의 체질개선 의지에 기대가 몰리는 이유다.

◆ADC 항암제 개발로 시너지 낸다

셀트리온그룹이 개발하는 신약의 첫 타깃은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암제다.

ADC 기술은 강력한 세포 독성 효과를 이용하면서 전신 독성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각광을 받고 있다. 항체의 암 항원 인식 능력을 활용해 암 조직에 선택적으로 약물을 전달해 항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최소의 투여량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낸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ADC 시장은 지난해 100억달러(약 13조9100억원)에서 오는 2028년 280억달러(약 38조9600억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1년 영국 ADC 개발사인 익수다 테라퓨틱스(익수다)에 지분투자를 통해 ADC 신약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 익수다는 4개의 전임상 단계 ADC 파이프라인 및 약물-항체 결합체 플랫폼 기술인 링커 페이로드(Linker-payload) 플랫폼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난해에는 익수다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를 통해 총 47.04%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 주주 지위에 올라섰다.

셀트리온은 현재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와 유방암·위암 치료제 ‘허주마’ 등 항암제를 확보하고 있다. 기존 파이프라인에 ADC 기술이 더해지면 더 다양한 항암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가 높다.

항암 파이프라인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2022년 미국 바이오기업 에이비프로(Abpro Corporation)와 최대 17억5000만달러(약 2조435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HER2 양성 유방암 표적의 이중항체 치료제 ‘ABP102’에 대한 공동연

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국내 바이오텍 피노바이오와의 계약을 통해 최대 15개의 표적에 피노바이오의 ADC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 외에도 미국 트라이링크바이오테크 놀로지와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고, 미국 바이오 라니테라퓨틱스와 경구형(먹는) 항체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스쿠어바이오사이언스와 마이크로바이옴과 킨슨병 신약 공동연구 등 협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기술로 신약 개발 역량을 키우고 있다. 향후에는 자체 ADC 플랫폼 기술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사 M&A 1조 투자

셀트리온은 신약 플랫폼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도 나선다. 서 회장은 최근 열린 애널리스트와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글로벌 제약사 인수합병 추진 계획을 밝혔다.

서정진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150여 케미컬 제품을 보유한 유럽 제약사 등 3개 기업을 인수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며 “인수 비용은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복귀 이후 지속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 합병을 검토해 왔다. 개별 신약보다는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이 최우선 대상이다. 다만, 기업 흡수 합병보다는 지분 인수 등을 통한 경영권 참여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회장은 지난해 복귀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와 함께 탄탄한 해외 기업 저평가돼 있을 때인 만큼 대규모 M&A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지난해부터 해왔다”며 “M&A에 필요한 재원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개인적으로 보유한 주식 등 스와핑 방식을 통해 4조~5조원 규모로 자금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의 신약을 보유한 기업보다는 신약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을 우선순위에 놓고 M&A를 검토하고 있다”며 “셀트리온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전후방 사업을 중심으로 미국, 일본, 인도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을 관찰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자사주 약 2조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신약개발사 체질개선 본격화
항암파이프라인 등 국내외 협업
“최종목표는 글로벌 빅파마”

서 회장은 지난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난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을 통해 추가 하락을 방어하지는 주주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면서도 “소각을 통해 주가가 소폭 오르는 것보다 주식 스왑 방식으로 M&A를 추진하는 게 회사에 더 큰 이득”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인수합병과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빅파마로 거듭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을 바이오시밀러 선두 주자에서 신약 개발 부문 톱티어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겨루는 회사로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회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플랫폼 기술 등을 인수 또는 도입해 균형감 있게 파이프라인을 보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셀트리온 제1공장 전경

트럼프 재집권시, 韓 자동차·반도체 등 전략 재수립 필요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 정책 영향
IRA 축소 우려에 K-배터리 비상
10% '보편적 기본 관세' 부과 예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RNC)를 앞두고 리허설을 하면서 무대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대선 유세 현장에서 피격을 당했다. 다행히 오른쪽 귀에 부상을 입는 정도에 그쳤으나 현장은 비명과 혼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번 피격 사건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오히려 상승하며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 산업계도 트럼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국 경제도 출렁이는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분간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까지 4개월이 남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며 국익을 위해서 기존 체제를 과감히 변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국과 갈등 심화, 관세 인상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다양하게 예측되는 가운데, 당선이 확정되기까지 미국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의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구체적인 대비

에 분주하다. 득과 실이 함께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분위기다.

◆IRA 축소 우려에 K-배터리 '긴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확대 등 친환경 정책에 부정적이며,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등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할 수는 없다.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양의 보조금(IRA)을 주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IRA를 통해 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IRA 정책은 7500달러의 전기차 구매세액공제 외에도 AMPC를 통해 Wh(킬로와트시)당 최대 45달러를 공제받

을 수 있다.kWh 당 셀 제조 단계에서 35달러,모듈 제조 단계에서 10달러를 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미국 내 전기차 제조 및 생산을 촉진한 IRA 정책이 축소·철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배터리업계의 상황도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IRA AMPC에 따른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능력 확보에 열을 올렸기에 IRA AMPC가 축소되거나 철폐되면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다만 트럼프도 IRA를 즉각 폐지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다. 공화당 강세 지역도 IRA에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고 있어서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이차전지와 전기차 산업은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중

요한 요소로 꼽혀 대체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중국 견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와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측면도 기대 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 감소로 인해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어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 부과

트럼프 측은 이번 선거 캠페인을 펼치면서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10%의 '보편적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을 주장하며 글로벌 교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60%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전자제품·철강·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4개년 계획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고, 친환경차 수출 증가 등으로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이 트럼프 캠프의 공약대로 보편 관세 10%를 한국에도 부과할 경우 대미 수

출이 152억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담에 따라 기업 판로에 단기 충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해당 법은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자 지난 2022년 제정됐다. 이는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약 75조 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추가로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겠지만 보조금 혜택을 줄이거나 보조금에 상응하는 투자를 더 늘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부 증권사들은 반도체 업종이 수혜를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진단한다. 현재 중국의 메모리 제조업체들이 낸드 플래시 등의 핵심 분야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한 경쟁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는 무역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처형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제 비상... "수익구조 다변화 절실"

금감원, 카카오·케이·토스뱅크 점검
중소·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
"기업대출 확대해 수익원 대체해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수익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점검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3월말) 기준 40조2000억원으로 1년전(29조100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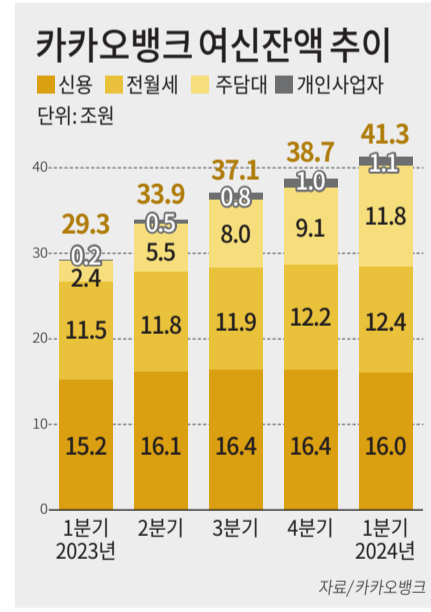
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4조 2000억원으로 74% 늘었다. 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642조 324억원에서 681조6624억원으로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대한대출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유입되는 것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해

당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에 집중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막히면 기업대출 확대?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처럼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렸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 최저임금 순위 8년간 '널뛰기'

2015년 17위·2019년 7위·2023년 10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서 연도별 순위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하위권에서 코로나19 시기를 전후로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뒤, 최근 다시 중상위권으로 밀려났다.

21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체 상근근로자 중위임금(가장 많은 임금부터 가장 적은 임금까지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듯) 대비 60.95% 수준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중위임금 330만 원에 최저임금이 201만 원가량이었던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한국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30개국 가운데 2022년도와 같은 10위에 자리했다. 작년에도 60%대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2년 앞선 2021년도(7위)에 비해 3계단 내려왔다. 단, 총 38개 회원국 중 스웨덴·덴마크·오스트리아 등 8개국 수치는 비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3~4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2018년 8위로 급상승한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리 7위 자리를 지켰다. 2020년도분은 중위임금 대비 62.45%까지 인상된 바 있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은 2015년(48.59%)과 2016년(50.41%)만 해도 30개국 중 17위에 머물렀다. 이후 불과 3년간(2017~2019년) 무려 10개국을 따라잡고 7위까지 올랐으나, 최근 들어 프랑스, 슬로베니아, 멕시코에 뒤져 10위로 처졌다.

20여년 전인 지난 2002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교대상 24개 회원국 중 23위인 최하위권에 속했었다. 당시 일본이 32.55%로 최하위, 한국이 33.42%로 뒤에서 2번째, 미국이 33.88%로 뒤에서 3번째였다.

우리나라의 중위 대비 최저임금은 2007년(42.86%) 40%를 넘어섰고 2016년(50.41%) 50%대, 2019년(62.66%) 60%대에 진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이중삼중 대책 시스템 강화해야"

>> 1면 '서비스 분산...'서 계속

이번 사태는 '나비테어'라는 항공권 전자발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발생했다. 나비테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작동하는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가 운영하는 '밸컨 센서' 보안프로그램의 업데이트 파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와 충돌하면서 발권 시스템이 마비됐다.

두 소프트웨어의 충돌로 블루스크린과 작동 중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세 항공사의 전자발권 시스템도 마비됐다. 이에 항공사들은 수기 발권으로 절차를 진행했는데, 승객 탑승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항공기 출발이 지연됐다. 이번 사태로 인한 결항은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IT 대란, 남의 일이 아닙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이중삼중 대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점진적으로 한 곳씩 바꾸는 패치를 배포하는 시스템적인 보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 방송, 항공, 게임 등의 기업은 시스템 장애로부터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분산과 이중화는 물론,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플랜 B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백대성 기자 iamnd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은행과 함께 성공할 CEO를 모십니다

NH농협은행의 전문컨설턴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과 함께 당신의 성공을 앞당기세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경영전문가 | 재무전문가 | 마케팅전문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전문 컨설팅 팀**



NH기업경영컨설팅
중소기업 대상 무료 기업경영전문컨설팅



NH소상공인(자영업자)컨설팅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무료 전문컨설팅



NH기업스마트뱅킹
앱스토어



NH기업스마트뱅킹
플레이스토어

NH농협은행 컨설팅 프로그램은 NH기업스마트뱅킹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관리부서 : NH농협은행 중소기업고객부

 **NH농협은행**

이진숙 등 '인사청문회 슈퍼워크' 돌입... 與野 전면전 예고

대통령실, 공영방송 개혁 의지 강조
野 "2인 체제 지속 시 탄핵 돌입"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 검증

'인사청문회 슈퍼워크'로 불리는 주간이 시작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가 지난 19일 열리며 여야가 거세게 맞붙은 데 이어, 22일부터 인사청문회까지 줄줄이 있어 여야의 대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김안섭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리는 데 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각각 22·24·25일에 개최된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청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소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스1

문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이에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

장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려 하자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후 사퇴하는 모습을 반복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바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인선 발표가 난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은 말 그대로 공기(公器)"라며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흥기라고 불린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공영방송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반면, 이 후보자의 지명을 "공영방송 장악용"이라고 폄하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돼서 불법적인 2인 체제 의결을 계속할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의 과거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과도한 주말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에서의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증인으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26명을 채택했고, 배우 류승완·문소리·정우성, 영화감독 박찬욱·봉준호·윤제균 등 47명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한 행사에 강연자로 나서 연예계가 문화계의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샀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틀차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야당의 방송4법 추진 중단과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추진 중단 및 법국민 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여당이 거절하면서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을 포함한 민생입법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당의 중재안 수용 거절 의사에 대해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제1호 당론법이자,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지급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에선 민생회복지원금을 재정건전성 기조에 어긋나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이재명, 90% 득표율 '독주'... 민생·재생에너지 강조

강원도서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
김두관 8.9%, 김지수 1.08% 기록
전날 제주·인천 경선서도 후 선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세 번째 경선이 21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전날에 이어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각각 8.90%, 1.08% 득표율을 기록해 고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선에서 90.0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20일) 제주·인천에서 실시한 민주당 당 대표 선거 경선에서 이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0.75%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강원 흥천종합체육관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순회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이 후보는 전날 경선에 이어 이번에도 민생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인공지능(AI)을 장착한 로봇들이 사람이 필요



김지수
당 대표 후보



김두관
당 대표 후보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로 하는 것들을 사람의 노동이 아니라 기계로 얼마든지 생산해 내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높은 생산력이 결국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고 극도의 초과이익을 만들어내는 세상, 또 한편으로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해야 하는 것인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기본 소득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팔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강원도부터 깔아야 한다"며 "그 길을 통해서 햇볕 연금·바람 연금으로 사람들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국토 균형발전, 인구 소멸 다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전날의 경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 후보를 견제했다. 김두관 후보는 "1인 정당, 제약적 당대표로 우리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 민주당의 DNA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직을) 연임하면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는 끝없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 민생은 누가 챙기겠나"고 했다.

김두관 후보는 "어제 궐련에서 여론 조사가 있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27%, 정말 보여줄 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에 35% 지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항간에 당심 필패·민심 필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국민과) 연대하고 연합할 때만 우리가 정권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언급했다. 김지수 후보는 "채 해병 사망사고는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채 해병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모습과 꼭 닮아있다"며 "죽을 만큼 가혹한 성과 요구, 구명조끼조차 없는 각자도생의 사회,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탄핵감 정치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 해병이 미래고 미래에 대한 책임도 안전망도 없는 이사회를 바꾸는 것이 채 해병을 위한 추모고 미래 비극을 막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 8명이 맞붙은 최고위원 경선에선 정병주 후보가 20.33%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병주(18.14%), 전현희(14.88%), 김민석(12.48%), 이인주(12.14%), 한준호(10.30%), 강선우(6.40%), 민형배(5.34%) 후보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경선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됐으며 참여율은 21.85%로, 2만7049명 중 5911명이 참여했다. /윤도현 기자 yunbgh0611@

檢, '도이치·명품백' 김건희 여사 12시간 비공개 조사

검찰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
與 "법·원칙 따른 엄정 수사 진행"
野 "국가 기관, 김 여사 해결사로 전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진)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이 21일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술렁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전날(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위반(명품백 수수 의혹)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아닌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해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김건희
당 대표 후보

고 한다. 김 여사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수사를 두고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조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환 쇼'라며 '악수대련'이라고 반발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소환 방식도 낯자도, 장소도 모두 김건희 여사 픽(선택)"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관이 김건희 여사 해결사로 전략했다. 정녕 모든 행정력을 사유화해 김건희 방패막이의 오명을 씌워야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의 조사장소를 문제 삼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 도이치모터스 및 명품백 수사를 위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건희씨(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야렸을까"라며 "대

한민국 검찰은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바로 멈춘다. 그들에게 윤석열은 여전히 인사권을 가진 보스이고, 김건희는 V0"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이 사안에 입장을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검찰이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일단 법률대리인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검찰 조사는 향후 정치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김 여사가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과 조사장소, 그리고 김 여사의 진술내용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의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청탁'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목사가 2022년 9월 13일 전달한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도 대통령실 행정관의 진술과 동일하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았다는 가방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검증할 예정이다.

문제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는 점이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것은 조사가 진행된 지 10시간 후의 일이다. 이 문제도 정치권에서 '검찰총장 패싱'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syj@

기억합니다

62년 전 정유공장을 짓던 다짐을
우리 손으로 원유를 캐내던 열정을

기약합니다

석유제품부터 배터리까지
우리의 기술로 전세계가 움직일 날들을

대한민국에 필요한 이노베이션



노후준비 부족 1세대 베이비부머, 만기 없는 '주택연금' 주목

HF공사, 지난해 가입자 12.1만명
3년 전 8.1만명서 두배 가까이 증가
주택연금, 배우자 간 상속 가능하고
부부 사망시 잔여분은 자녀에 상속

노후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면서도 부족한 노후 자금을 충당할 수 있고 가격 상승시 상승분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된 노후 가구에 특히 유리한 상품이란 분석이다.

2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는 약 12만1000명이다. 지난 2020년 가입자인 8만1000명에서 3년 만에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주택연금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은퇴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담 창구. /뉴시스

제공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정부의 정책금융상품이다. 본인 혹은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며 주택 가격이 공시가 12억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 간 상속이 가능하며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면 잔여분은 자녀에게 일시에 상속된다.

은행권 상품과 달리 만기가 없어 사

망 시까지 지급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가입 도중 지급액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해서 지급된다는 것도 한 장점이다.

주택연금이 주목받는 것은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들 세대의 노후 준비는 비교적 미흡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가구 중 83%는 노후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가구주가 이미 은퇴한 가구 중 생활비가 부족한 가구도 58.4%에 달했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37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노인 외 가구의 평균 소득인 533만원의 44%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출 부문에서도 노인 외 가구는 월평균 290만원을 지출했지만 노인 가구는 월평균 140만원을 지출해 소비 여력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20%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 대체율, 미성숙한 퇴직연금 제도 등 충분한 노후 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도 노후 가구의 어려움을 심화시켰다.

60세 이상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약

5억5000만원으로, 39세 이하 가구주의 자산인 3억4000만원의 1.6배 수준이다. 하지만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78%에 달해 청년 가구(53%)보다 자금 유동성이 떨어졌다.

60세 이상 가구의 자가 주택 거주 비율은 70%였다. 이에 따라 본인 명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한 주택연금이 인기를 얻고 있는 것.

다만 주택연금은 중도 해지 시 지급된 금액을 일시 반환해야 하고, 주택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해지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액은 가입 당시의 지급액으로 정해지지만 만기 시 반환되는 금액은 만기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 지급한다"며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만기 지급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이번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하반기 상승장 기대

3500달러대 거래, 국내 490만원대
ETF 거래 소식에 일주일새 11% 상승
미국 자산운용사 5곳에서 거래 시작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가상자산 시장에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하반기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35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고, 국내거래소에서는 49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 8월 28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2월19일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는 소식에 이더리움 가격은 일주일새 11% 상승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일(현지시간) 제출기한 마감일에 맞춰 자산운용사들로부터 S-1(증권신고서) 수정안을 받았다.

제출한 자산운용사는 블랙록을 포함해 피델리티, 반에크, 프랭클린템플턴, 21셰어스, 그레이스케일 등 6곳이다.

SEC는 지난 5월 23일 반에크, 21일 셰어즈, 비트와이즈 등 8개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19b-4 신청서를 승인했다. 수정된 서류는 해당 자산운용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상장하기 전 SEC가 요구하는 승인 마지막 단계 중 하나다.

당초 시장에서는 최종 승인이 이르면 이달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오

는 23일(현지시각) 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증권거래소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지난 20일 자사 웹사이트 '신규 상장(New Listings)' 목록에 5곳의 자산운용사가 오는 23일부터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규 등록을 앞둔 5곳은 21셰어스(21Shares), 피델리티(Fidelity), 프랭클린템플턴(Franklin Templeton), 인베스코(Invesco), 반에크(VanEck)의 투자 상품이다. 블랙록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옵션거래소는 신규 상장 공지 사항을 통해 "미국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오는 23일부터 신규 발행물로 거래를 시작할 것임을 발표해 기쁘

다"라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에 따른 이더리움 가치 상승과 가상자산시장의 상승세 주도를 기대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낮은 마켓캡(매수·매도 거래량)과 거래소 보유량 등으로 인해 공급 충격이 발생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더리움의 상당 부분은 스테이킹, 브리지,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묶여 있기 때문에 기관유입 시 높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더리움 ETF 자금 유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1년 동안 36억달러(약 4조9000억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미래에셋생명 "MVP 펀드로 해외자산 투자하세요"

자산관리 전문가가 운용 관리·일임
2분기 변액보험자산 75% 해외투자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 써야 할 자금을 저축으로만 관리한다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없다.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단기적으로 손실은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 노후 및 미래 준비를 위해선 보수적인 마인드를 극복하고 투자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

노후 대비 투자 핵심 포인트는 세제적격 상품(IRP·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상품(연금보험)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다. IRP와 연금 저축은 일정 부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으나 이후 발생한 수익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이 발생한다는 것이 변액보험과의 차이점이다. 변액보험의 경우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최대 월납 150만원 혹은 일시납 1억원)이므로 발생하는 수익 모두 비과세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보완해서 모두 준비할 필요가 있다. 투자 시작 시기가 빠를수록 복리효과와 장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미리 하는 것이 좋다.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관리가 필요한 상품이다.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등 투자처를 넘나들며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수익이 높아진다. 다만 급변하는 투자 환경을 개인투자자가 일일이 분석해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로 제때 갈아

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한 미래에셋생명의 솔루션이 바로 'MVP 펀드'다.

미래에셋생명 MVP 펀드는 고객을 대신해 업계 최초로 보험사의 자산관리 전문가가 전략 수립부터 운영까지 모든 자산운용을 직접 관리하는 일임형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다.

미래에셋생명은 올 2분기 기준 글로벌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전체 변액보험 자산의 75.3%를 해외자산에 투자했다. 업계 전체 평균(동사 제외 19개 보험사)인 16.6%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다.

MVP 펀드는 초기에는 3개의 펀드로 시작해 순자산은 약 3억원 규모였다. 철저한 시장 분석과 전략적 투자를 통해 현재 12개의 펀드로 확장했다. 순자산 규모는 약 4조원에 이르렀다.



미래에셋생명 사옥. /미래에셋생명

단순한 펀드 확장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중점을 둔 결과다. 지난 10일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 변액펀드 가운데 미래에셋생명 플래그십 펀드 MVP60펀드 누적수익률은 87%, 글로벌 MVP주식형 펀드의 경우 누적수익률 105%에 달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분양 캘린더



고양 장항 아테라 투지도. /금호건설

파주 제일풍경채운정 등 6개 단지 3659가구 분양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3659가구(일반분양 316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 목동동 '제일풍경채운정', 대전 유성구 학하동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 경북 구미시 봉곡동 '힐스테이트구미더퍼스트' 등에서 청약 행사를 진행한다.

건보주택은 경기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아테라', 대전 유성구 용계동 '도안푸르지오디아텔'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대전 유성구 학하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를 분양한다. 총 5개 단지, 51개동, 532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 2단지가 나온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4층,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1124가구로 임대를 제외한 891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전용면적 84~240㎡, 1437가구 중 1222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동서대로, 도안대로, 유성대로 등을 통해 대전시내와 세종, 공주시 등 인근 도시로 이동이 편리하다. 도보 거리에 초·중·고교 부지가 조성 예정이며 진잠천, 숙달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금호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에서 '고양장항아테라'를 분양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kdh@

최태원 “SK 합병, 큰 시너지 낼 것”

〈대한상의 회장〉

대한상의 제주포럼

반도체 사업 정부 지원 강조
“팹 하나 건설하는데 20조 소액
세제 혜택만으로 감당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첨단 반도체 팹(생산공장) 하나를 건설하는데 20조 원가량이 든다”며 “세제 혜택 형태만으로는 지금 상황이 잘 감당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회장은 이어 “SK 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에 대해 인공지능(AI) 관련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제주에서 열린 제47회 대한상의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AI 시대에 각광받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투자는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전제한 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한다. 미국, 일본처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거액의 설비투자 보조금을 내세워 자국 반도체 사업 지원과 생산 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산업 지원은 세계 지원 위주다. HBM도 전기가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급감)처럼 수요가 언제라도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현재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HBM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AI칩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관련 제품을 가장 많이 납품하는 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 회장은 “과거에는 효율적인 칩을 만드는, 반도체 집적도를 높이는 걸 연구개발(R&D)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집적도를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의

를 요구해 우리는 설비투자를 더해서 공장을 늘려 지어야 한다”며 “그런데 공장 하나 짓는데 대충 계산해도 20조 원을 투자해야 한다. HBM의 경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일본,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래야 자기네 나라에 와서 공장을 만들지 않나. 우리나라도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뭘 해줘야 한다. 그걸 안 하고 ‘알아서 혼자 해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K이노와 E&S 합병 관련 질문에 “AI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두 가지가 합쳐지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한 건 AI쪽”이라며 “AI에도 지금 보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한 쪽은 배터리 등을 지니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수소나 전기에 관련한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에너지 관련) 솔루션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며 “향후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전기를 솔루션화 한다

면 그것도 상당히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 포함 AI와 관계된 인프라를 계속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AI를 잘 이해하는 ‘AI 전사’를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빅테크, 또는 많은 AI와 관계된 곳들이 우리나라를 택하지 않고 공동화가 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른 데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AI 데이터센터부터 AI에 관계된 인프라 구조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AI를 이해하고 사업할 수 있는, 저는 그걸 ‘AI 워리어(전사)’ 이런 형태로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조를 깔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선 관련 질문에 “누가 대통령에 되든지 중국에 대한 정책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반면 환경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경제를 부스트하는 데는 더 좋을 수 있다”며 “반면 경제에서는 불확실성보다는 안정성이 더 좋다고 하는데, 트럼프가 들어오면 불확실성이 증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당선 시 미 정부 반도체 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AI에 관계된 시장은 미국이 제일 크고 앞으로도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그건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국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아 큰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아직 완전히 다 결정된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안 준다면 우리도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메르세데스-벤츠 CLE 카브리올레.

‘오픈카’ 로망에 성능·디자인



메르세데스-벤츠 CLE 450 카브리올레

오픈 톱 드라이빙에 기능 최적화
고속 주행시 머리 위로 공기막 형성

유럽에서는 젊은 사람부터 나이 지긋한 분까지 오픈카를 즐긴다.

‘로망’을 상징하는 오픈카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와 여유를 즐기는 이들의 동반자이다. 파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즐기며 해안 도로를 달리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때문에 자유와 일탈, 여유를 담은 영화에는 오픈카가 자주 등장한다.

지난 16~17일 메르세데스-벤츠가 국내 시장에 지난 6월 출시한 2도어 오픈톱 모델 CLE 450 카브리올레를 타고 도심과 해안도로를 즐길 수 있는 부산 일대를 주행했다. 시승은 부산 빌라주드 아난티를 출발해 울산 울주군에 있는 간절곶을 경유해 돌아오는 왕복 약 6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우선 외관은 긴 후드와 전장 및 휠베이스, 낮은 전고, 짧은 오버행으로 완성된 스포티한 비율과 측면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 등을 통해 CLE 카브리올레만의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실제 이전 모델인 E클래스 450 카브리올레보다 길이는 5mm 늘었고, 전고는 5mm 낮아졌

으며, 휠베이스는 10mm 늘었다. 덕분에 2열 공간은 생각보다 넉넉했다.

최고 60km/h의 주행 중에도 20초 이내에 개폐가 가능해 출발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량을 오픈했다. 특히 오픈 톱 드라이빙에 모든 기능이 맞춰졌다. 암레스콘솔박스 앞에 차량을 개폐하거나 에어캡을 설정하는 버튼을 적용해 주행 중에도 부담없이 컨트롤 할 수 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속구간과 해안도로 주행시 운몸으로 전해지는 속도감은 매력적이다. 또 직렬 6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381 ps, 최대 토크 51 kgf·m의 성능은 부족함이 없다. 가속페달을 밟는만큼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했다. 낮은 전고로 도로에 붙어 있는 느낌은 안정감을 높였고 실제 코너 구간에서 하체 안정성과 코너 주행 응답력은 뛰어났다. 다만 제로백이 7.9초인데 초반 가속력은 매력적이지 않았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오픈 톱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해도 에어캡이 탑승자 머리 위로 공기막을 형성해 외풍을 최소화해 머리카락이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또 오픈카 주행 시 디스플레이 빛반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디스플레이 각도(15~40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운전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연비는 11.2km/L(복합연비 10.7km/L)로 나쁘지 않았다.

/양성운 기자

HD현대-지멘스DIWS, ‘디지털 제조혁신’ 힘 모은다

기술협의회 개최... 주요경영진 참석

HD현대와 지멘스 DIWS 경영진이 선박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제조혁신’ 개발에 힘을 합친다.

21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지멘스 DIWS와 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선 HD현대 부회장과 김형관 HD현대미포 사장, 장광필 HD한국조선해양 부사장, 안오민 HD현대상호 전무, 지멘스 DIWS 토니 헤멜겐 CEO 등 양 그룹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 그룹은 ▲HD현대미포의 ‘소조로봇 시뮬레이션’, ‘판넬라인 생산 최적화’ ▲HD현대상호의 ‘지멘스 마린 플랫폼’, ‘산업용 메타버스(Teamcenter X) 기반 설계자료 시스템’ 등 공동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추진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HD현대미포 김형관 사장(왼쪽부터), 지멘스 DIWS 토니 헤멜겐 CEO, HD현대 정기선 부회장이 19일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에서 ‘기술협의회’를 개최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D현대는 지능형 자율운행 조선소 구현을 위해 2022년부터 지멘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기술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HD현대미포는 2025년까지 다양한 로봇 자동화 장비를 도입해 지멘스와 함께 가상공장 시뮬레이션 및 데이터 연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HD현대 관계자는 “선박 설계에서 생산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제조혁신을 업계 최초로 이룬다는 자부심을 갖고, 일반 상선, 합정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혀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고려아연, 환경투자비 3.2배 ‘경총’

최윤범 회장, 친환경 기업 전환 속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환경투자액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면서 친환경 기업으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고려아연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회사가 집행한 환경투자비는 396억원이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전년 123억원과 비교하면 3.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고려아연의 환경투자비는 2021년 약 114억원에서 지속해 늘리고 있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전담 조직인 ‘지속가능경영본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신설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윤범 회장은 “고려아연의 궁극적인 탄소중립을 향한 투자와 노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



이자 우리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영 모델을 구축하는 핵심”이라며 “비철금속 제련 사업뿐만 아니라 ‘트로이카 드라이브’라는 신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저탄소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 탄소 감축 노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전체 환경투자액 중 약 70%(278억원)가량은 대기 개선에 사용했다. 이어 수질 개선에 109억원, 화학물질 관련에 9억원 등을 각각 사용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투자 집행량을 통해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 측정기 8개와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잡액탱크 등을 설치하고 있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 장비를 도입하는 등 녹색 제련소 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통신3사 “갤Z6 구매시,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

‘갤럭시Z6’ 신형폰 사전개통

통신 3사, 선택약정 요금할인 저렴 알뜰폰, 단말기 개별구매 요금제 가입 통신사 카드 혜택·부가 서비스 활용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일제히 갤럭시 Z6 신형폰 사전개통에 나선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통신 3사를 이용한다면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다소 유리하고, 가장 저렴한 방법은 개별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할 경우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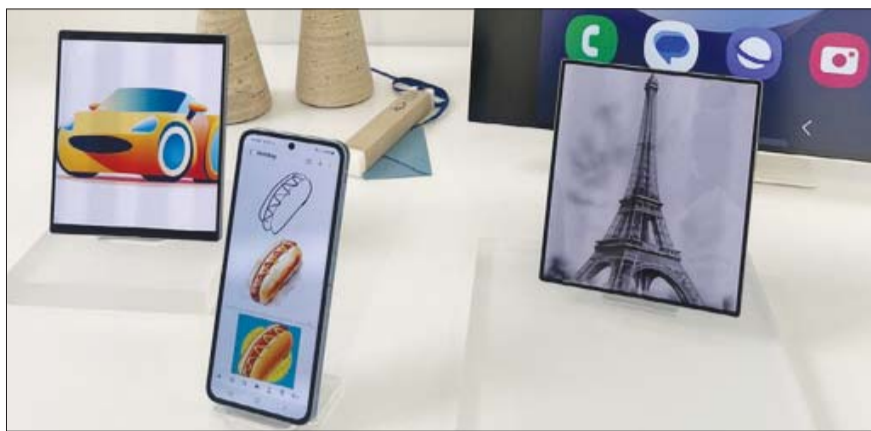
◆통신3사, 공시지원금 8만원~24만원

통신 3사는 지난 19일부터 삼성전자 최신 폴더블폰(접이식 휴대폰) ‘갤럭시 Z폴드·플립6’의 사전개통을 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2일부터 18일부터 진행된 사전판매 소비자들에 대한 사전개통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제공되는 공시지원금(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요금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4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사전판매 책정 금액과 같다.

5G 요금제 기준 SKT는 8만원(5G 콤팩트)에서 24만5000원(5GX 플래티넘), KT는 6만9000원(5G슬립 4)에서 24만원(5G 초이스 프리미엄), LG유플러스는 6만6000원(5G 미니)에서 23만원(5G 시그니처)로 책정됐다.

갤럭시 Z6 시리즈 가격은 갤럭시Z 폴드6 256GB 모델은 222만9700원, 512GB와 1TB 모델 판매가는 각각 238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에서 갤럭시Z 폴드6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구남영 기자

만8100원, 270만4900원이다. 색상은 실버 웨도우, 핑크, 네이비 3가지로 출시됐다. 갤럭시Z플립6는 256GB 모델은 148만5000원 512GB 모델은 164만3400원이다. 색상은 블루, 실버 웨도우, 옐로우로 구성됐다.

◆통신3사 공시지원금보다 선택약정이 유리할 듯

주목할 만한 점은 요금제별로 받을 수 있는 공시지원금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통상 공시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것이 공시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통신 3사를 통해 148만 5000원인 플립6(256B)를 구매할 경우 통신비와 단말기 포함해 매월 납부해야 할 금액은 17만원 가량이다.

구체적으로 SK텔레콤의 12만5000원(5GX 플래티넘) 요금제를 선택하고 공시지원금을 받는다면 기기값은 120만3300원으로 낮아진다. 기기값과 통신

비를 합한 총비용은 420만3300원이다.

KT의 13만원(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공시지원금을 적용한 기기값은 120만9000원 수준으로 총비용은 432만9000원이다. LG유플러스는 13만원(5G 시그니처)요금제를 사용하고 공시지원금을 받으면 기기값은 122만5000원이다. 총 43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통신3사의 요금제가 2년 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24개월을 분할 납부할 시 통신비 제외 매달 5만원 가량을 단말기 할부금으로 내야 한다는 셈이다. 반면 선택약정으로 구매하면 총납부할 금액은 더 저렴해진다. 통신3사를 통해 갤럭시 Z6시리즈를 구입한다면 공시지원금보다 높은 25%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KT의 13만원 요금제로 플립6(256B)를 구매할 경우 24개월 분할 납부했을 때 매월 내야 하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6만1875원이다. 하지만 선택약정을 적용하면 25% 할인이 적용돼 3만 25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총 납부

금액은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것보다 50만4000원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

◆알뜰폰 가장 저렴해 월 10만원 대

통신3사를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본인이 단말기를 구입해 알뜰폰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플립6(256GB)를 할인가인 139만원 대로 판매하고 있다. 이를 구매해 24개월 분할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5만8000원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알뜰폰 업체 KT엠모바일의 5G 최고가요금제(월 4만7001원)을 가입하면 월 납부해야 할 총 통신비는 10만 5000원 수준이다. 통신 3사에 비해 약 7만원 가량이 저렴한 셈이다.

한편, 통신 3사는 신제품 관련 카드 혜택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제휴카드인 현대카드 ‘M3 라이트’로 제품을 할부 구매하고, 전월 실적 50만원을 넘기면 2년간 최대 72만원을 할인한다. ‘T 안심보상’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최대 152만원을 할인해준다.

KT는 KT닷컴에서 회원 포인트로 최대 5만원까지 기기 값을 할인해준다. 또한 삼성·BC카드 사용 고객 대상으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아울러 ‘KT 365 폰케어 폴드·플립6’에 가입하면 과손·분실과 36개월 뒤 스마트폰 교환 기회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사용하지 않는 중고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교체해 자녀에게 기기를 물려주는 ‘갤럭시 패밀리 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KT

‘Y 워터페스티벌’ 진행

KT가 야구 관람과 물놀이를 함께 즐기는 응원 이벤트 ‘Y 워터페스티벌’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7월 고객 감사 문화 이벤트 ‘초대드림’에 응모한 고객 640명을 초청해 진행됐다.

KT는 내달 장기 혜택 개편을 통해 매월 새로운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 ‘초대드림’을 정규화할 계획이다. 8월의 초대드림 이벤트는 ‘보야지 투자리움’ 뮤직 페스티벌로, 조만간 KT닷컴을 통해 참여 응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밀리의서재

상반기 독서 트렌드 선봬

독서 플랫폼 밀리의서재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가 전자책과 오디오북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이 읽힌 것으로 조사됐다.

독서 플랫폼인 밀리의서재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독서 트렌드’를 21일 발표했다.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전자책 카테고리에서 내 서재에 담은 수 20만 건을 돌파했고, 오디오북 카테고리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전자책 카테고리에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에 이어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와 ‘세이노의 가르침’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오디오북 분야에서는 ‘세이노의 가르침’과 ‘불편한 편의점’이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인기 도서 상위 100위에서는 소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문과 자기계발 도서가 뒤를 이었다.

/이혜민 기자

제주항공

2024 하반기 공개채용

제주항공이 대규모 공채에 나선다. 제주항공이 2024년 하반기 신입과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부문은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인사, 구매, 영업, 호텔, 지점 운송 등이다. 근무지는 서울, 인천 등 직무별로 근무지가 상이하다.

제주항공 2024년도 하반기 공개채용 입사지원서는 오는 7월30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 및 자세한 일정은 제주항공 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

LG전자, 세탁기·전조기 등 ‘가전 구독’… 유니콘 사업 우뚝

지난해 구독 매출 1조1341억 기록 “가전 구매고객 10명 중 3명 구독 신청”

다양한 유료 구독 모델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가전제품도 월 구독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을 선택하고 있다. 앞서 잠정간 LG전자의 호조에 삼성전자도 가전 구독 시장에 뛰어들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LG전자는 2022년 가전 구독 시장을 개척한 지 2년 만에 조 규모의 ‘유니콘 사업’으로 성장했다.

21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



LG가전의 가전 구독 서비스 소개 화면. /LG전자

매출은 1조 1341억원으로,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동기보다 성장세가 더욱 빨라져 연말에는 연간 최대 구독 매출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업계 안팎에선 올해 LG전자가 가전 구독만으로 매출 1조 원 중반대를 넘어 2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미 올해 1분기 가전 구독 사업에서 전년 동기(2010억 원)보다 72% 증가한 매출 3456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성적을 거둔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을 구매하는 고객 10명 중 3명 이상이 구독 방식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전 구독 서비스의 인기 비결에 대해 “고물가 시대에 최신 기기를 선뜻 구매하기 힘든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구매 이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관리서비스를 받거나 무상수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달부터 호텔, 병원, 식당 등에 ‘클로이 서브봇’을 배치하는 ‘로봇 구독 서비스’도 운영한다고 밝히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 향후 가전 구독을 해외 시장까지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도 가전제품 구독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예정이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늦어도 10월까지 가전 구독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기자 hyem@

삼성, 에버랜드에 갤럭시폰 체험존 운영

삼성전자가 에버랜드 판다월드 마스코트 ‘바오패밀리(라바오, 아이바오, 푸바오,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콘셉트로 한 갤럭시 Z 폴드6·플립6 체험존 ‘바오패밀리는 플립을 사랑해(BAO FAMILY LOVES FLIP)’를 1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에버랜드에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바오패밀리 구성원 다섯의 생일이 모두 이달에 모여있는 것과

삼성전자 신제품이 공개된 것을 함께 기념하기 위해 체험존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체험 공간은 에버랜드 정문 주변 ‘글로벌페어’ 야외 광장과 맞은편 실내 체험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야외 광장에는 최대 7m 높이의 바오패밀리 조형물로 구성된 포토존이 꾸며졌다.

조형물은 갤럭시 Z 플립6와 바오패밀리가 함께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됐다.

/구남영 기자

네이버, 포인트 쌓는 ‘오늘도 즐찾’ 이벤트

네이버가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 홈피드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네이버페이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오늘도 즐찾 네이버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오늘도 즐찾 네이버앱 홈피드편’을 진행한다.

사용자가 홈피드를 아래로 스크롤하며 콘텐츠를 살펴보다 홈피드에 나타나는 이벤트 스티커를 터치하면 자동

으로 랜덤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스티커가 노출되는 위치는 매일 지정 변경된다.

네이버는 매일, 스티커를 터치한 로그인 사용자 선착순 20만 명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최대 1만원을 랜덤으로 지급한다. 또 2주간 동안 매일 이벤트 참여를 완료한 사용자 1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혜민 기자



칠레 최정상 아이콘 와인
몬테스

美 정치 불확실성 확산... 기관 '코스피 하락', 개미 '상승' 베팅

코스피 2800선 아래로 떨어져 기관 투자자, 인버스 ETF 순매수 증시 변동성 활용 수익률 극대화 개인 투자자, 순매도 '정반대 선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피 하락에 인버스 투자를 고민하는 투자자들을 가상으로 그린 이미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미국발(發)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자 코스피가 2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와 분산 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ETF를 변동성 방어 전략으로 선택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순매도에 나서는 모양새다.

2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인버스 ETF였다. 기관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매수한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2525억원, 그 뒤를 이어 KODEX 인버스는 44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들과 정반대

의 선택을 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ETF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2661억원을 기록했다. KODEX 인버스도 384억원을 순매도했다.

'인버스 ETF'는 추종하는 증시나 종목군이 하락할 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이다.

KODEX 인버스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가 1% 내릴 때 1% 상승을 추구하고, KODEX 200선물인버스2X는 코스피200 지수가 하락하면 2배가량 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의 경우는 이른바 '곱버스(곱하기+인버스)'로 불리기도 한다. 반대로 지수가 상승하면 돈을 두 배

로 잃을 수도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증시가 요동치면 변동성이 커진 점을 활용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인버스 ETF를 통해 포착됐다. 2890대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지난 16일부터 4영업일 연속악세를 보이는 중이며 전주 대비 61.54포인트(2.15%) 내린 2795.46에 거래를 마쳤다.

이에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하락 추세가 지속된다'에 베팅을,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는 반등할 것이다'에 베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피격 사건 이후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가 요동치는 증시를 분석하는 시점이 정 반대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기관 투자자는 곱버스를 매수하고 레버리지를 매도했지만, 개인투자자는 레버리지를 매수하고 곱버스를 매도했다. 외국인의 경우는 곱버스를 매수하

기는 했지만 150억원가량만 매수했을 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하락 추세를 보인 코스피지만, 이를 보고 올해 하반기 코스피 추정치를 하향 수정한 증권사는 나오지 않았다. 대선 이번 주 국내 증시는 한층 강해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국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전망 차원에서 NH투자증권은 7월 넷째 주 코스피의 예상범위로 2760~2880선을 제시했다. 상승 요인으로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강화와 2분기 기업 실적 호조를 꼽았고, 하락 요인으로는 트럼프 미 대선 후보의 정책 리스크와 미국 주식 시장의 순환매를 꼽았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빅테크 실적발표를 계기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돼 순환 흐름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美 대선에 기술주 중심 급락... '은행주' 부상 가능성

美 대선 후보자, 반도체 부정적 기준 은행·부동산 실적 추정치 상향조정 트럼프, 銀 규제완화 의지 등 긍정 요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미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피셔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NC)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지난 13일 유세 중 발생한 총격으로 숨진 코리 콤포라토레 소방관의 유니폼을 가리키고 있다. AP/뉴스시스

최근 상승 랠리를 보이던 뉴욕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락한 가운데, 다음 주 주도로 '은행주'가 거론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0.93%) 내린 4만 287.53에 한 주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39.59포인트(0.71%) 낮아진 5505.00에, 나스닥 지수도 144.28포인트(0.81%) 떨어진 1만 7726.94에 종료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반도체 관련 내용을 시사하면서 기술주 차익실현이 시작

된 모습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관련해 반도체 무역 규제 강화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아 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두 대선 후보자 모두 반도체와 관련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인공지능(AI) 열풍에 탑승하던 빅테크·반도체 종목들의 열기가 꺾이는 모양새다. 고공행진하던 AI 대표주 엔비디아의 주가도 지난주(7월 15~19일) 8.75% 폭락했다. 같은 기간 AMD 주가 역시 16.53% 떨어지면서 반도체주의 약세를 대변했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그간 뚜렷해진 금리 인하 경로와 예상보다 견조

했던 경기 상황을 바탕으로 이뤄졌던 로테이션장세가 경기상황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 그리고 대형기술주의 매도세가 지속됨에 따라 힘을 잃은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다우는 6거래일 연속 신고가 랠리를 종료하기도 했다.

일각에는 다음 주 주도로 은행주가 부각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대승 DB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 IT 기업들의 주가 상승세가 주춤한 반면, 다른 섹터는 강세를 보이면서 주식시장 주도 섹터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한 달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섹터에 속한 산업군은 은행과 부동산"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실적발표를 통해 실적 성장이 확인되고 있는 미국 대형 은행에 관

심을 가질 것을 추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은행 규제에 반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강 연구원은 "트럼프의 규제 완화 의지와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기업들의 투자 세액 공제 혜택 연장에 따른 기업의 대출 수요 증가 가능성에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미국 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황 연구원은 "일부 대선 캠페인 인사들은 바이든의 사퇴는 시간문제라 평가했고, 베팅 기반의 당선 확률 사이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주자 등록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사하는 부분에 대한 힘이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신하은 기자 godhe@

신약 '렉라자' 美 승인 기대감... 신고가 경신

metro 관심종목 유한양행

이달 들어 주가 17.92% 올라 승인 시 하반기 수익률 개선 전망

유한양행이 신약 '렉라자'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경우 하반기 실적 개선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17.92% 상승했다. 일주일 사이 신고가를 여러 번 경신한 모습이다.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19일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희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발

표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레이저티닙 목표 시장점유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며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FDA 승인여부 결정이 약 한 달 내로 다가온 가운데, 8월내 승인된다면 3분기 미국 출시 마일스톤 유입으로 수익률 개선이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목표주가도 13만 4000원으로 올렸다.

'렉라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유한양행 협업사인 안젠은 지난해 12월 FDA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 요법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미국 FDA 승인 여부가 8월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2월 J&J는 렉라자 병용 요법에



국산 폐암 신약 '렉라자'의 모습. /유한양행

대해 FDA로부터 우선심사 대상 승인을 받은 바 있어, 6개월 뒤인 8월 22일경 승인이 가능하나 그보다 앞서 언제든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PDUFA) 기한이 다음 달 22일로 가까워지며 유한양행의 주가가 상승 중"이라며 "경쟁 약물인 타그리스-화학항암제 병용요법의 경우 PDUFA 기한 대비 2개월 먼저 승인된 이력이 있기에 렉라자 또한 PDUFA 기한 전 승인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SK증권, 태국거래소와 녹색금융 협력 논의

태국, 청정에너지 체제 전환 속도

전우중, 정준호 SK증권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여의도에서 키티퐁 우라피파 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녹색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태국 정부는 2040년까지 청정에너지 비중을 50%로 늘리기로 계획하는 등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태국증권거래소(SET)는 아세안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세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로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성장 활성화와 ESG 채권 발행 확대를 위한 방안 등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접견에서 태국증권거래소 대표단은 ▲SK증권의 녹색금융 현황 ▲SK증권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 현황 ▲국내 금융기관 기후정보공개 정책에 대한 다양한 벤치마킹을 했다. 또한, 최근에 SK증권에 영입된 한정호 글로벌사업부 대표가 SK증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협력 모델을 제시, 경쟁력 있는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대화를 이어갔다. 전우중 대표이사는 "국내 금융기관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국가 위주로 진출하고 있어 태국은 진출 여력이 큰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녹색금융, 디지털화,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태국증권거래소에 SK증권만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키티퐁 이사장은 "SK증권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혁신적인 접근 방식의 노력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홍보문자 사칭, 교묘한 '피싱 범죄' AI 기술 활용해 사전 예방책 강화

피싱 범죄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 민간, AI가 실시간 피싱문자 분류 정부 대응책... 실효성 미흡 목소리

'보이스피싱·스미싱·스팸' 등 금융 범죄가 교묘해지면서 국가와 민간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간 기업은 AI 기술을 통해 사전 예방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과 수사 인력 부족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만 치중해 비판을 받고 있다.

◆ 증가하는 피싱 범죄

최근 2년 동안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피싱 범죄는 감소 추세였으나,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AI를 활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화·지능화되고 있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이 발생한 2019년(3만 7667건)에 비해 지난해 1만 8902건으로 50% 감소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은 4472억 원가량으로, 2021년 7744억 원에 비해 약 40%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5월까지 총 8434건에 2563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활발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홍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스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스팸 문자 상당수는 스미싱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돼 스마트폰을 해킹할 수 있어 2차 피해도 초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스미싱은 2022년 3만 7122건에서 지난해 50만 33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5월에는 73만 5218건을 기록해 이미 전년 수치를 넘어섰다. 스팸 음성·문자 건수도 2019년 3112만 건에서 지난해 3억 268만건으로 약 10배 정도 폭증했다.

◆ AI 기반 피싱 범죄 방지 기술 고도화

IT·통신업계는 AI를 활용해 피싱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AI가 실시간으로 피싱 문자를 자동 분류



해 차단하는 '악성 문자 필터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하반기 출시되는 신제품부터 적용되며, 기존 스마트폰 모델에도 출시일을 고려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즉각 차단하는 '긴급 망 차단 서비스'를 지난 10일부터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번호를 정지하기 위해 최소 하루가 소요됐지만, 시스템 도입으로 KT 망 내 범죄 회선의 전화 수·발신을 즉각 차단할 수 있다. KT는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국가기관과 협력해 피싱 범죄를 탐지하는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알려주는 기능이다. 특히 통화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하는 소형언어모델(sLM) 기반의 온디바이스(기기 내장형) AI 기술을 구현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피해방지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이 시스템은 LG유플러스가 보유한 고객의 피해 대응 정보와 경찰청, 한

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기관 정보를 분석해 스팸 메시지를 자동 차단하고, AI·머신러닝 등 ICT 기술을 활용해 대응 방안을 도출한다.

◆ 정부 대응 실효성 미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문자 재판매사의 전송 자격을 강화하는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문자 재판매업자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KT나 LG유플러스 등 문자중계 사업자로부터 전송 자격을 인증 받아야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자율 규제다.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 유예기간 동안 스팸 문자가 급증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문자 재판매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자본금 5000만 원에서 3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문자 발송 시장은 연 2조 원대 규모로 진입장벽이 낮아 수익을 목적으로 스팸 문자를 대량 유통하는 이들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자본금으로 진입 장벽을 높여 스팸 문자를 막는다는 건 한계가 있다"며 "제도적 허점을 막을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방문·창문 닫고 밀폐 후 가동 물통·필터 꼼꼼히 관리해야

장마철 제습기 활용 꿀팁

에어컨 함께 가동하면 냉방 효과 ↑ 위치는 거실이나 방 가운데에 설치

장마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집안이나 사무실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뽕뽕뽕하게 할 수 있는 제습기 사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름 장마철 실내 습도 조절에 실패하면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호흡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21일 생활가전업계에 따르면 실내 습도는 40~60% 사이가 적당하다. 일반적으로 습도가 40% 이하이면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진다. 습도가 60% 이상이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된다. 특히 장마철엔 습도가 80% 이상까지 높아질 수 있어 제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실내에서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방문이나 창문을 꼭 닫고 밀폐한 후 가동해야 한다. 창문을 열고 제습기를 돌리면 밖에 있는 습기가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습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제습기를 가동할 때는 방1, 방2 등 정해진 공간을 각각 밀폐시킨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제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습기 용량 때문에 한꺼번에 넓은 면적을 제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제습기를 사용할 때는 벽 또는 가전제품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가동하는 것이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제습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 가능하면

거실이나 방의 가운데에 제습기를 위치시키는 것이 좋다.

생활가전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제습기의 공기 흡입구와 필터, 물통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습한 공기를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공기 흡입구와 필터는 먼지가 쌓이기 쉽고 먼지가 흡입구를 막으면 제습 기능이 떨어진다. 또 물탱크에 물이 고인 상태로 2시간 이상 놔두면 세균 및 미생물, 곰팡이가 번식할 우려가 있어 자주 물을 비우고 세척도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습기와 함께 에어컨을 동시에 사용하면 냉방 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습기는 회사마다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

'코웨이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는 공기 청정과 제습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제품으로 30㎡의 청정 면적과 하루 12.5L의 제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상황과 필요에 따라 공기 청정과 제습을 맞춤으로 설정해 사용할 수 있다.

청호나이스의 '청호 미니 제습공기청정기 Compact'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 어울리는 제품이다.

공기청정필터는 H13등급 HEPA필터를 적용했으며 소비전력 45W로 전기요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

LG전자의 '휘센 듀얼 인버터 제습기'는 스마트 제습, 쾌속 제습, 저소음 제습, 집중 건조 등 다양한 모드를 갖추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코웨이 듀얼클린 제습공기청정기.



LG전자 휘센 듀얼 인버터 제습기.

"미등록 PG 절세 단말기, 탈세 추정될 수도"

금감원·국세청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절세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보고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인 B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미등록 PG 결제대행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B법인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가세와 법인세도 신고하지 않았기에 A씨의 홈택스 매출액은 미등록 PG 단말기로 올

린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B법인의 미등록 PG 혐의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A씨에게 수천만원대 부가세를 추징했다.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은 미등록 PG 업체가 '절세 결제대행 단말기'를 통한 매출 은닉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금감원과 국세청은 최근 금융위원회 미등록 불법 PG들이 '절세 단말기'를 내세운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제로는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해당 단말기를 통해 자영업자로부터 7~8%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영업 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가맹점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집중호우 피해 中企 '공제기금' 대출 확대

중기중앙회, 대출금리 2%p 인하 납입 월부금 6개월까지 유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 지원을 받길 원하는 기업은 지자체가 발급한 재해확인서를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고물가 환경에서 담보 여력이 부족해 시중은행 대출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납입 부금액의 최대 3배까지 신용대출을 지원하여 금융사각지대의 보완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운영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채용 시 혼인여부·출신지역 등 요구... 불공정채용 '여전'

고용부, 올해 상반기 629개소 점검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341건 적발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집중확인 채용탈락자 서류 보관 사례 등 있어

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비속의 학력과 직업 등을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등 불공정채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직공고, 청년다수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를 적발해 과태료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계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지원자 자신의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많았다.

A제약회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 적발돼 각각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C운수업체는 지난 4월 채용과정에서 구비서류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력서 등에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출신지역과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D 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가,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 전액을 환급했다. 법 제9조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하거나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업자도 있었다. 채용탈락자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각각 법 제11조제4항, 법 제10

조 위반이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체를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돼지열병, 경남·충남 확산 우려” 사우디에 국내 ‘화학물질관리제도’ 전수

‘경북도 12개 시·군 현장점검’ 추진 방역 대한 현장 긴장감 유지 차원에서 지자체 단체장 등과 면담 계획

정부가 이달 하순 경북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실태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울진과 영덕, 청송, 포항, 영천, 경주, 청도, 경산, 성주, 문경, 김천, 의성 등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ASF의 경남쪽 남해 및 충남 등지로의 서진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경북 영천시(6월15일), 안동시(7월2일), 예천군(7월6일)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야생멧돼지 양성 검출이 지속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경상



경북 상주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철망이 설치돼 있다. /농식품부

북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 12개 시·군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방역에 대한 현장의 긴장감 유지 및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간부직원(과장, 서기관 등 6명)이 발생위험이 큰 경북도 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해당 시군 재난·환경·방역부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관리,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및 양돈농장 방역관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한 농장 및 축산시설 배수로 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 조치사항도 점검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검출되고 경남과 충남 등으로 남해 및 서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사우디 관계자, 화학물질안전원 방문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립환경중수센터에 우리나라의 화학물질관리제도 내용과 운영 방법 등을 전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우디의 국립환경중수센터 관계자들은 1박2일 일정으로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송읍에 위치한 화학물질안전원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국 화학물질관리제도 도입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동시에 지속적

인 교류 및 협력 도모를 위해 마련했다.

방문을 통해 ▲화학물질관리 법령 및 조직 체계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제도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화학안전의 전반적인 제도를 배우고자 이틀간 우리나라 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방문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관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쌀 1.5만톤 지원

농식품부와 UN WFP 협력

한국산 쌀 1만5000톤(t)이 방글라데시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소수민족 난민 100만 명에게 지원된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북 군산항을 출발한 원조 쌀이 현지에 도착했다며, 이달 16일 방글라데시 콕사바자르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전달 행사가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협력하고 있는 국제연합(UN) 세계식량계획(WFP)은 원조 쌀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이후, 로힝야족 난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해 쌀 100립당 아연, 철, 엽산, 비타민 A, B1, B12가 첨가된 쌀 1립을 섞어 영양강화 쌀로 가공한 후 재포장했다. 난민캠프에서는 그간 분배식량 감소로 미량 영양소 결핍이 심화했다. 이번 재가공 쌀 섭취를 통해 영양실조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다.

WFP는 이 쌀을 방글라데시 콕사바자르 및 바산 지역의 로힝야 난민 약 100만 명에게 한 달 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전달식에 참석해 원조식량이 난민에게 지원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현지 반응을 살폈다. 그는 난민캠프를 찾아 수혜자들과 면담한 후 “이 지역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이 아닌 한국 쌀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까 염려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잘 받아들여져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난민들을 위해 올해 10만 톤의 쌀을 해외 식량원조로 보냈다. 이는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두 배(5→10만 톤)로 늘렸다. 지원 국가도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확대해 방글라데시 및 아프리카 5개국에 신



방글라데시에 지원된 한국산 쌀. /농식품부

규로 대한민국 원조 쌀을 받게 됐다.

아시아의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중동의 예멘이 대상국이다.

이번 식량원조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쌀의 도정, 포장, 선적, 훈증 및 검역 등을 실시했다. 지난 4월17일 전북 군산항에서 출항 기념식을 가졌다. 이곳에서 선적된 1만5000톤의 쌀이 5월1일 출항해 5월18일 방글라데시에 도착했다. 나머지 8만5000톤도 목포, 울산, 부산항을 출발해 이달 17일까지 11개 수원국에 모두 도착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기대, 기술·공학 학점은행제 학습자 모집

30개 온라인 교육과정 전액 무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원격평생교육원은 21일 민간 공급이 어려운 기술·공학 분야 과정의 온라인 학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 학습자 1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기계, 메카트로닉스, 컴퓨터 등 기술·공학 분야의 30개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학

습자는 최대 4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다.

이번 과정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4일~29일까지 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학습자 선발 결과는 8월 14일,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발된 학습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2학기 학점은행제는 9월~12월까지 15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엔디에스, 용역 위탁 서면 미발급 '적발'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

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중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 발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놀랄 만 큼 다 양 한 콘 텐 츠
볼 수 록 빠 저 드 는 초 고 화 질 지
몰 입 감 높 이 는 사 운 드 까 지

똑같은 품질!

우리 집 통신비 아껴주는

알뜰한 가격!

화질·음질UP | 합리적 가격 | 다양한OTT



TV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Hello tv Pro

헬로tv Pro 런칭기념

기본료 할인 EVENT 진행중!

※ 24년 7월 31일까지 가입 완료한 고객에게 해당됩니다.

1:1 실시간 상담톡
바로가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Ch

LG헬로비전



상담문의 1855-1094

부산상의 “‘더 잘되는 경제·상의·기업’ 위해 노력할 것”

창립 135주년 기념식 종합경제단체로서 역할 확대 기부금 전달식·심포지엄 진행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이하 부산상의)는 지난 19일 오후 2시 부산상의 2층 상의홀에서 지역 경제계 원로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기관장 및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3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상의는 1889년 7월 19일 민족 상권 옹호를 위해 설립된 부산객주상법회사가 효시이며 이후 동래상업회의소, 부산조선인상업회의소를 거쳐 1946년 근대화 모습을 갖춘 이후 현재까지 135년 동안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종합 경제 단체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에는 삼성그룹 고(故) 이병철 회장과 LG그룹 고 구인회 회장 등 전국구 기업인들이 부산상의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부산상의는 부산은행, 부산도시가스, 부산생명보험, 제일투자신탁, 에어부산 등 다수의 기업 설립을 주도하며 지역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삼성자동차와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강서구 1000만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부산시와 함께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부산 유치, 에어부산 분리 매각, 부산형 복합리조트 유치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창립 기념식은 1부 기념행사와 2부 정책 심포지엄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1부 행사에서는 주요 내빈들의 축사 그리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는 ‘긍정&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고, 이어 2부에서는 ‘더 잘되는 부산 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부산 경제의 지속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부산상의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논의하는 정책 심포

지엄이 이어졌다.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박인호 상임의장도 ‘부산 경제 발전 전략과 상의 역할’에 대한 발제를 통해 부산상의가 재정 안정과 독자적 혁신 역량 확보 그리고 부산시 등 지역 유관 기관과 정책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산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생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비영리 경제단체인 부산상의가 한 세기를 넘어 135년 동안 부산 경제와 함께 성장해 온 것은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어다닐 것이며, 당면한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철 같은 신념과 열정을 갖고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여수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전남도가 160억 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027년까지 4년 간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105억 원)을 들여 여수국가산단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1967년 조성된 여수국가산단은 50년 이상 지나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지하 시설물 데이터와 실제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확인돼 주민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진도군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 개시

진도군은 민원인이 팩스 대신 문자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는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를 전남 지자체 최초로 개시했다.

간편e 문자로 팩스 서비스는 IT(정보통신 기술) 취약계층 등 팩스 사용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개발한 서비스이며,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핸드폰 사진 촬영 후 전자팩스 번호로 사진을 첨부하여 문자 전송하면 된다.

이미지 형태의 사진만 전송할 수 있으며, 서류 사진이 군 전자팩스함에 정상적으로 수신되면 접수 알림 문자가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샌안토니오 청소년단체 방문 환영행사. /광주광역시

광주시-美 샌안토니오, 친선 교류활동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진행 3박4일간 광주 역사 배워

광주광역시 자매도시인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이 광주를 방문, 광주 청소년들과 우의를 다졌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광주를 방문한 미국 샌안토니오시 청소년들과 광주 청소년들이 광주 전역에서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했다.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는 1982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 42년 동안 활발하게 도시외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론 니렌버그 샌안토

니오시장이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광주를 방문해 국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e스포츠경기장을 시찰하는 등 첨단산업,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교류를 강화했다.

자매도시 교류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는 두 도시의 자매도시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민간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샌안토니오시 청소년 26명과 광주 청소년 10명 등 총 36명은 3박4일 일정으로 광주의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해남군, 내달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눈길

미니 K-POP 콘서트도 진행

해남군은 8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해남군민광장 일원에서 ‘2024 한여름 밤의 문화축제, 미니 K-POP 콘서트’를 개최한다.

매년 여름 군민광장에서 펼쳐지는 한여름밤의 문화축제는 다채로운 문화공연으로 더위에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더하고, 즐거움을 주는 대표적인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일 해남예술인 한마당과 3일 K-POP 미니콘서트로 꾸며진다.

2일 해남예술인 한마당은 오후 7시부터 초대가수 송대관을 비롯해 염유리, 강혜연, 진이랑, 금강 등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하여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3일에는 오후 8시부터 마야, 이무진, 트리플에스 등 실력

파 가수들과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하는 미니 K-POP 콘서트의 뜨거운 열기로 여름밤을 달굴 예정이다.

특히 3일에는 미니콘서트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K-POP 플레이그라운드 행사가 진행된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10개 지역 유명 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해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는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해남이 공모에 선정되어 해남군 한여름밤의 문화축제 기간 열린다.

오후 3시 K-POP 아이돌 파우(POW)의 팬 사인회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유명댄스크루인 ‘엠비서스’와 함께하는 랜덤플레이 댄스를 진행한다.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만든 ‘한방 댄스’ 안무 챌린지와 현장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 선발

돌봄공백 우려 가정 대상 활동

경북도가 22일부터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 69명을 선발해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은 대구·경북지역 대학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간호학과 등 아동 관련학과 2학년 이상의 대학생 중 대학에서 추천받은 자로 인·적성검사, 면접, 사전 필수교육 등을 거친 후 돌봄 활동을 하게 된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 인재 활용을 위해 ‘대학생 아이돌봄 지원단’을 기획해 지난 5월 대구·경북 지역 10개 대학과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최대 시간당 1만1630원)을 90~100% 지원한다.

그 결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아 아이돌보미를 지속해서 충원했음에도 일부 시군에서는 서비스 이용 신청이 집중되고, 대기 가정이 발생하는 등 돌봄 공급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돌봄 활동에 선발된 대학생 지원단들은 지난 10일과 12일 안동과 구미에서 아동 안전관리 교육, 유아·아동 돌봄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와 함께 현장 교육을 가졌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시, 적극행정 유공 ‘대통령 표창’

지자체 중 유일 수상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모범적 성과를 거둔 기관과 직원을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행안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지자체 1위에 선정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훈격이 확정됐다.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한다. 지난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 ‘국민평가단’과 함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실적을 평가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기장군 ‘여름바다’ 현대미술 작품전

부산 기장군은 오는 23일부터 박태준기념관에서 현대미술 작품전인 ‘Waving Waves 파랑 파란 파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전은 여름 바다를 주제로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작품이 전시되며 ▲건축 ▲조각 ▲영상 ▲공예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기념관 입구에서부터 가장 안쪽에 있는 수정원에 이르기까지 작품들이 파도 물결처럼 배치돼 기념관 공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기장(부산)=이도식 기자

끝 안 보이는 장마... 채소·과일 등 밥상물가 '적신호'

폭염·폭우 반복... 산지출하 영향 적상추, 일주일새 소매가 56% ↑ 일각선 근원물가 영향 제한적 분석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전국 장마가 장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수박·상추 등 채소와 제철 과일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다. 관련 부처는 밥상물가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밥상 물가 영향에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21일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9일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1주일 만에 56.3% 상승했다. 전년 대비 16.5% 이상 오른 수치다.

다른 채소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시금치는 100g에 1675원으로 1주일 전보다 17.5% 상승했다. 풋고추는 100g에 1508원으로 1주일 전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상추와 깻잎 등 채소류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12.3%, 1년 전보다 27.3% 각각 상승했다.

배추(한 포기·5092원)와 열무(1kg·4404원)도 1년 전보다 각각 24.0%, 22.3% 올랐다. 수박은 1개 2만1736원으로 1주일 전보다 3.5% 올랐다. 이는 평년보다 7.5% 오른 수준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가락시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복되는 폭우와 폭염에 채소 생육도 악영향을 받는다. 올해 장마는 농가에 유난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선 이 같은 이상 기후가 채소 및 과일 출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로 이어진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장마는 과거보다 더욱 길어지면서 채소와 과일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이처럼 불안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긴 장마로 산지 출하가 불안해지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는 밥상물가 상승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련 부처인 농식품부는 채소 등 농산물 공급량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밥상 물가 상승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매일 회의를 열어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의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 병해충 방제, 농가 현장 기술지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

해 평가를 조속히 마치고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해 농산물 수급을 조기에 안정시킬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마 피해가 발생한 직후 농촌진흥청 기술 지원과 농협의 무이자 자금 지원 등 대책을 동원해 공급량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일부 품목의 경우 주산지에 호우가 집중돼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올랐지만, 밥상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장마철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상 기후로 특정 품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체감 물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근원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풀무원, 파스타 시장 저변 확대 나서

바릴라 경연대회 APAC 본선 성료 김정호 셰프 대한민국 대표 선정

'국내 냉장면 1위' 풀무원이 '이탈리아 파스타 1위' 업체 바릴라와 손잡고 파스타 신메뉴 및 셰프 발굴 등 국내 파스타 시장 저변 확대와 글로벌 미식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풀무원식품은 아시아 대회에 참가할 대한민국 대표 셰프를 뽑는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의 한국 본선을 성료하고, 파스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중요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은 이탈리아 파스타 No.1 바릴라가 주최하는 전문 셰프들의 파스타 요리 경연 대회다. 대한민국을 포함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8개국에서 국가별 본선을 진행하였다. 풀무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본선은 지난 16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개최



지난 16일 풀무원 수서 본사에서 개최된 '2024 바릴라 셰프 경연대회 APAC'의 한국 본선 참가자들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풀무원

됐다.

이날 본선 심사 결과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출신의 뉴욕 미슐랭 레스토랑 근무 이력이 있는 WALF의 F&B디렉터 김정호 셰프가 대한민국 대표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가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 재료인 토마토와 가지를 사용해 파스타의 기본에 충실하였으며, 각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조화로운 메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셰프는 오는 10월 마닐라에서 열리는 8개국 결승전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풀무원은 '좋은 원료만을 사용해 건강한 식품을 만든다'는 공통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바릴라와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바릴라 파스타 면과 소스를 독점 수입해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소비자들에게 이탈리아식 정통 미식을 계승하는 파스타의 맛을 전달하고자 서비스 브랜드 '아티장'을 론칭하고 다양한 파스타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나라셀라, 뉴질랜드 와인 '시크릿 스톤' 출시

출시 기념 쿨러백 선착순 증정

와인 수입업체 나라셀라는 뉴질랜드의 신규 와인인 '시크릿 스톤'을 출시했다.

'시크릿 스톤'은 뉴질랜드 말보로에서 2004년 설립된 와이너리로, 뉴질랜드의 신비한 돌인 '그린스톤'에서 가져온 이름이다.

아름다움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그린스톤처럼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아름다운 아로마와 감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뉴질랜드 소비농 블랑 특유의 자른 풀과 자몽 향의 강렬한 뉘앙스를 가진 와인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왔다. 상큼한 시크러스와 핵과류 향이 코를 즐겁게 하고, 입에 머금자마자 느껴지는 신선한 산도가 인상적이고 자몽 향이 긴 여운을 남긴다. 식전주로도 손색없고, 굴, 초밥, 숙성회와 같은 해산물 요리와 크림 또는 오일 파스타와 잘 어울린다.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은



나라셀라가 선보이는 뉴질랜드 와인 '시크릿 스톤 말보로 소비농 블랑'의 모습. /나라셀라

나라셀라 직영점(와인픽스·나라셀라 리저브)과 전국 주요 백화점(현대·신세계·롯데·갤러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고, 출시를 기념해 와인 쿨러백을 선착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나라셀라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식혀줄 가성비 좋은 프레시한 뉴질랜드 와인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성비'와 '가성비'를 충족시킬 와인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CU, 요거트 등 건강관리 상품 라인업 강화

오롤리데이 협업 그릭요거트 출시

CU가 건강 관리 트렌드를 이끌기 위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오롤리데이'와 협업한 그릭요거트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오롤리데이는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일상 아이템을 전개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2030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릭요거트는 요거트에서 유청을 제거해 꾸덕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일반 플레인 요거트에 비해 당류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포만감을 오래 유

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 견과류, 샐러드 등과 함께 먹을 수 있어 활용성도 높다.

CU가 이번에 출시하는 상품은 '그릭요거트 플레인(3500원)'이다. 해당 상품은 기존 NB 상품 대비 최대 16% 가량 저렴한 가격에 맞출 수 있다.

CU가 그릭요거트를 출시하는 이유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매출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CU의 그릭요거트 매출 성장률은 2022년 무려 983.6%를 기록했고 2023년 43.0%, 올해(1~6월) 120.8%로 매년 큰 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모델이 '사이초'를 들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스파클링 티 '사이초' 선봬

롯데백화점이 21일 잠실점, 인천점, 동탄점에서 세계 최고급 스파클링 티 음료 '사이초'를 선보인다.

'사이초'는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 5성급 호텔에서만 만날 수 있던 영국 프리미엄 스파클링 티다.

/최빛나 기자

홈플러스, '가을학기' 회원 선착순 모집

초저월령 등 신규강좌 개설

홈플러스가 실속 있고 합리적인 강좌들로 구성된 문화센터 '가을학기' 회원을 선착순 모집한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하여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각 강좌는 클래스별로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홈플러스 86개점 문화센터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모집하는 이번 문화센터 가을학기 강좌는 초저월령(3~7개월) 강좌가 확대된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8개월 이후 인기 프로그램들은

저월령 특성에 맞게 교구, 의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변화를 주어 신규 강좌를 개설했다. 이를 위해 베이비마사지 자격증 취득이나,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선배맘들로 강사를 구성하는 등 3~7개월 초저월령 강좌 운영을 원하는 백일둥이 이야기 엄마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런칭 기념으로 8월에는 초저월령 대상으로 그림책 상호놀이법과 안정애착 양육코칭으로 구성된 '꾸미꾸미 광광 그림책 워크샵' 프로그램을 전국 5개점에서 우선 진행한다.

/신원선 기자

GC녹십자, 혈액제제 ‘알리글로’로 미국 시장 공략 본격화

히알루론산 필러 등 수출 다각화
美 시장서 매년 50% 성장률 기대
美 수출 넘어 중서 성장기반 마련

‘알리글로’를 앞세워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시장에 입성하고 있는 GC그룹이 혈액제제 사업을 비롯해 히알루론산 필러, 진단 사업 등으로 해외 수출 다각화에 속도를 낸다.

21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지난 8일 자사가 개발한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초도 물량 선적을 완료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국내 혈액제제의 미국 시장 진입은 처음이다.

알리글로는 선천성 면역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일차 면역결핍증에 사용하는 정맥투여용 면역글로불린 10% 제제다. GC녹십자는 면역글로불린 정제 공정에 GC녹십자의 독자 기술인 ‘양이온 교환 색채 분석법(CEX 크로마토그래피)’을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혈전색전증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혈액응고인자 등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 알리글로 특징이다.

GC녹십자가 출하한 알리글로는 미국 내 물류 창고와 유통 업체를 거쳐 전



GC녹십자 본사 전경.

/GC그룹

문 약국으로 전달되는데, GC녹십자는 지난 2023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알리글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후 실질적인 알리글로 처방을 위한 단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GC녹십자는 미국 법인을 중심으로 미국 내 대형 처방약급여관리업체(PBM)와 알리글로 처방집 등재 계약을 맺고 전문 약국을 확보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GC녹십자는 올해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알리글로가 5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매년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알리글로가 미국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GC그룹은 글로벌

최대 의약품 시장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녹십자홀딩스는 지난 17일 홍콩법인 녹십자HK홀딩스의 지분 전량을 중국 CR제약그룹의 자회사 CR 보야 바이오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녹십자홀딩스에 따르면 해당 계약의 매각 금액은 약 3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녹십자홀딩스는 CR제약그룹과 GC녹십자, GC녹십자웰빙 등의 주요 제품에 대해 중국 내 판매를 책임지는 별도의 유통계약도 맺었다. 중국에서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CR제약그룹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C녹십자는

국내 오창공장에서 생산하는 혈액제제 ‘알부민’과 유전자재조합 방식의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를 CR제약그룹을 통해 유통하게 된다. 혈액제제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 중 하나인 면역글로불린은 미국으로 수출하고, 알부민은 중국으로 수출해 혈액제제 사업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GC녹십자웰빙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히알루론산 필러 사업에 속도를 낸다. CR제약그룹이 중국에서 GC녹십자웰빙의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유통을 책임지게 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GC녹십자웰빙은 지난 1월에도 국내 기업인 유영제약과 협력해 중국 필러 시장 공략을 준비해 왔다.

GC녹십자웰빙과 유영제약은 중국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품 개발부터 생산, 판매 및 마케팅까지 협업하고 있다. 무엇보다 유영제약에서 제조한 히알루론산 필러는 지난 2023년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으로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GC녹십자웰빙은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중국 ‘안취거린커약품 판매유한공사’와 공급계약을 맺고 오는 2030년 총 400억원 대의 히알루론산 필러 판매를 목표로 하는 등 중국 필러 시

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아울러 GC그룹은 베트남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과 베트남 페니카그룹은 베트남 최초의 유전자·암 전문 종합 진단·판독기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양자간 주주간계약서(SHA)를 체결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이 오랜 노후우를 활용해 베트남 현지에서 진단검사실을 구축하고, 종합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GC녹십자아이메드가 베트남 현지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센터를 세우는 것이 사업 골자다. 페니카그룹은 이번 사업에서 베트남 현지 영업과 마케팅을 맡는다.

페니카는 산업, 기술, 교육,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의 국내외 30여 계열사를 갖춘 베트남 대표 기업 중 하나다. 페니카 그룹은 베트남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량을 선보여 잘 알려진 페니카-X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GC그룹은 베트남에서의 성장 기반이 향후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진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美 바이오텍에 384억 올리고핵산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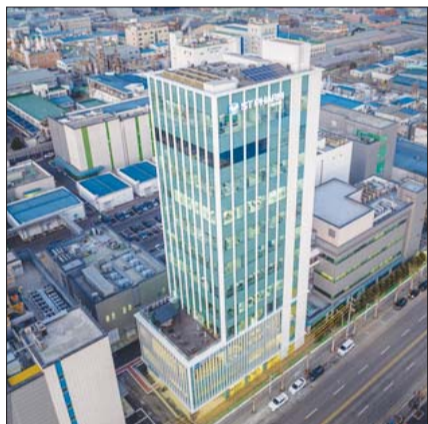
에스티팜

올리고핵산 상업화 공급 계약 체결
계약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동아쏘시오그룹의 계열사 에스티팜은 지난 19일 미국 소재 바이오텍과 ‘올리고핵산치료제 원료의약품의 상업화 물량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에스티팜에 따르면, 해당 계약 규모는 384억원으로, 지난 2023년 에스티팜이 기록한 매출액 2850억원의 13.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스티팜은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며 “이번 계약 금액은 계약 기간이 상이한 3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동아쏘시오홀딩스

의 동일 품목 공급 계약 건을 합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티팜은 비밀유지 거래에 대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거래 상대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에스티팜은 현재 올리고핵산 치료제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에스티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RNA 기반 신약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자체 캡핑 기술과 LNP 약물 전달 기술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에스티팜이 주력하고 있는 CDMO 제품은 RNA 기반 약물에 사용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다. 최근 유전자 치료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약물전달 기술이 발달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에스티팜은 원료의약품 CDMO 사업에서 원료의약품 공급자로 선정되는 것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K-뷰티 종합정보 한눈에”

기업 공식 홈페이지 선보여
화장품 산업 지원정보 등 공개

CJ올리브영이 K뷰티 시장 전반을 다루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CJ올리브영은 화장품 업계 중소기업과 뷰티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산업 정보를 모은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올리브영은 이번 공식 홈페이지를 ‘K뷰티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홈페이지는 화장품 산업 지원정보, 올리브영의 지속가능경영 정보, 올리브영 소식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지원정보’ 항목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여러 곳에 분산된 정부 지원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국 250여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3000건 이상의 화장품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사업화, 투자·용자, R&D, 판로·해외 진출 등 주제별로 소개한다.

‘지속가능경영’에서는 올리브영이 추진하는 협력사 지원사업과 소통 프로그램 등 상생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소개’에는 숫자로 보는 CJ올리브영, CEO 메시지 등을 통해 기업 정보를 설명하고, 올리브영의 소식을 알리는 뉴스룸도 마련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 사업 파트너와 소비자를 고려해 연내 영문과 일문으로도 자료를 제공하고, 국내외 산업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블랙야크 키즈

여아용 원피스 3종 선포

유아용 패션 브랜드 ‘블랙야크 키즈’는 여름맞이 여아용 원피스 3종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블랙야크 키즈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한 원피스 제품군은 우븐 스트레치, 잠재권축사 원단 등 시원한 촉감을 주는 소재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캐주얼한 디자인과 경쾌한 느낌을 더하는 색상을 적용해 평상시엔 물론 여행, 나들이에도 입을 수 있어 여름 방향을 맞춘 여아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것이 블랙야크 측의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스마일게이트 ‘스토브’, 여름 특별할인 행사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 진행

스마일게이트가 여름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플랫폼 ‘스토브’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쿨스타: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스마일게이트에 따르면 ‘쿨스타: 쿨썸머 스토브 페스타’는 여름 인기 장르 게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행사로 참가자는 호러, 미스터리, 무빙, 슈팅, 액션 5개 카테고리에 100개가 넘는

게임을 만나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워킹데드: 텔테일 디피니티브 시리즈, 스테퍼 케이스, 킬 더 크로우, 이프선셋 등 장르별 상위 인기 순위를 기록하는 게임들이 이에 포함됐다.

이용자들은 대상 이벤트 기간 동안 무제한 발급하는 30% 할인 쿠폰을 적용해 해당 게임들을 구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한 개의 ID 당 3장 발급되는 700원 중복 할인 쿠폰을 통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안재선 기자

넥슨, ‘메이플스토리M’ 신규 캐릭터 공개

‘에릴 라이트’ 세계관·스킬 등 공개

넥슨이 ‘메이플스토리M’의 새로운 캐릭터를 선보인다.

넥슨은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메이플스토리M’의 라이브 방송 ‘SHINE, 두 번째 이야기’를 열고, 신규 캐릭터 ‘에릴 라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슨에 따르면 라이브 방송에는 넥슨 김현승 디렉터와 이사라 기획팀장이 출연해 두 번째 캐릭터 ‘에릴 라이트’의 세계관, 주요 스킬, ‘아칸’과의 관계성

등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에릴 라이트’는 은빛 수호 기사단 대장 중 하나로, 빛의 기동 과편을 활용해 만들어진 창 ‘그람’을 주 무기로 사용한다. 은빛 수호 기사단의 총대장인 ‘아칸’의 추천으로 은빛 수호 기사단에 입단하게 되며, 이후 메이플 월드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다는 설정이다.

아울러 해당 캐릭터는 빛의 파수병, 광휘의 파수병, 파수대장 등을 활용해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참여 방법

팍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NH투자증권, 고령군 농촌마을공동체 냉장고 기부
NH투자증권이 경상북도 고령군청에 냉장고 38대를 기부했다. NH투자증권은 2019년부터 농촌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총 6개 군에 냉장고 352대를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김용기 NH투자증권 부사장, 이남철 고령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형지엘리트, 인천지방국세청 '선진세정' 표창
패션종합기업 형지엘리트가 '선진세정' 표창을 수상하며 책임 경영을 실현했다. 형지엘리트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선진세정'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최준호 형지엘리트 부회장(왼쪽)과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형지엘리트



중진공-서울바이오허브, '바이오테크 육성' MOU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바이오허브와 함께 '바이오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중진공은 서울바이오허브와 '바이오유니콘'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왼쪽 3번째)가 서울바이오허브 김현우 센터장(왼쪽 2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에몬스, 생활가구부문 'KS-PBI' 1위
에몬스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의 '2024 프리미엄브랜드지수(KS-PBI)'에서 생활가구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 에몬스 김강태 이사(왼쪽)가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몬스

중앙대 '예비중앙인 전공체험' 접수

중앙대학교는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2024년 예비중앙인 전공체험' 신청을 2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중앙인 전공체험은 고교생들이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교수 직강,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전국 고교생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 참가 신청은 22일까지 진행된다. 중앙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전공별로 선착순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LG전자, '올레드 에보' 14개국 소비자 평가 1위

북미·유럽 등 최고점수 "모던하고 정교하며 완벽"

LG전자의 AI(인공지능) TV 'LG 올레드 에보'가 전 세계 14개국 소비자 매체의 TV 성능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LG전자는 LG 올레드 에보가 미국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로부터 ▲70인치 이상 ▲65인치 ▲46~52인치 ▲39~43인치 등 크기별로 구분한 항목에서 모두 최고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2024년형 올레드 에보(G4)에 대해 매체는 "현재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TV 중 하나"라며 334개의 평가 대상 가운데 최고 점수를 줬다. 영국 소비자 매체 '위치'(Which)도 LG 올레드 에보(C4)에 대해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매체는 특히 음향과 화질에 칭찬했다.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 /LG전자

이탈리아 소비자 매체 '알트로컨슈모'(Altroconsumo)도 LG 올레드 에보(C4)에 최고 점수를 주며 "모던하고 정교하며 완벽하다"고 호평했다. 이 밖에도 LG 올레드 에보는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호주의 소비자 매체에

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다. LG전자 정재철 HE연구소장은 "2024년형 LG 올레드 에보는 사용자를 배려하는 강력해진 AI 성능을 통해 고객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AI 성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공영홈쇼핑 "수산대전" 참여하세요

공영홈쇼핑이 22일부터 8월 4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여름휴가 특별전을 진행한다. 21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물가 부담을 낮추고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했다. 행사 기간동안 공영홈쇼핑 온라인 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수산물 20% 할인 쿠폰을 발급한다. 쿠폰은 고객당 1장 발급되며, 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보양을 위한 민어를 비롯해 오징어, 전복 등 다양한 인기 수산물을 준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솔홈데코 '탄소중립위너상' 영예

한솔홈데코가 '제 27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탄소중립위너상을 수상했다. 21일 한솔홈데코에 따르면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탄소중립 관련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수여하는 '탄소중립위너상', 에너지 효율 및 절감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에너지위너상' 두개 부문으로 나뉜다. 한솔홈데코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환경경영 강화 전략을 시행해 이번 탄소중립위너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현대모비스,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 개최

학생 300여명 초청... 단체·개인전

현대모비스가 양궁 꿈나무 육성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한 양궁문화 저변 확대를 이어간다.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양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을 고취하고, 생활스포츠로서 양궁의 재미와 이해를 지속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통한 양궁 꿈나무 육성을 위해 양궁교실을 운영하는 전국 15개 중학교 300여 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2024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2024 현대모비스와 함께하는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에 참가한 전국 15개 중학교 학생들이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에서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모습.

학교스포츠클럽 양궁대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로 3년째인 이번 행사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남서울대학교에서 열렸으며 참가 학생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나눠 실력을 겨뤘다. 현대모비스 여자양궁단 소속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 선수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활 쏘는 법을 지도하고 개인전에 참가한 학생들과 토너먼트로 시합을 펼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7년부터 양궁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 양궁을 보기만 하는 종목이 아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로 육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시멘트협회, 지속가능 성장 방안 모색

제51회 시멘트 심포지엄 석회석 대체 등 15편 논문 발표

국내 시멘트업계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추가 모색에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국내 9개 시멘트회

사 임직원 및 유럽, 일본 등 해외 관련 전문가, 학회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시멘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멘트 심포지엄은 최신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의 아이디어가 '핀셋 전략'에 가까워 해를 거듭할수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성과를 거둔다는 평가를 받는 행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쌍용C&E의 '석회석 대체 비탄산염 원료 사용 저열시멘트 클링커의 소성성 및 광물 특성에 관한 연구' ▲한일시멘트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칼슘실리케이트계 시멘트의 합성 및 기초 물성 평가' ▲세라믹기술원의 '시멘트 혼합제로서 바닷물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 등 총 15편의 논문 발표와 함께 활발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김승호 기자 bada@

서울시교육청,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6개 기관 선정... 6억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가칭)를 시범운영하고 해당 학교에 예산을 최대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운영 공모를 통해 유치원 3개, 어린이집 3개 유형 등 6개 기관을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 공모를 희망하는 서울시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은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유치원은 공문으로, 어린이집은 이메일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한다. 시범운영 기관에서는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운영 과제인 ▲충분한 운영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선정 시범학교에 총 6억원 이내에서 예산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hj@

원격대학협의회 공병영 신임회장 선출

전국 22개 사이버대학 운영 협의 회체인(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사진)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병영 신임 회장은 오는 9월 1일자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6년 8월 말까지 2년이다. /이현진 기자



인사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관 김형광

부음

▲한덕구남벌세, 환경선(국세공무원교육원장)씨 부친상 = 21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장례식장 특실(지하2층), 발인 23일, 064-731-3211.

교보문고 4주연속
한국소설 베스트셀러
TOP 10

원작 도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13개국 판권 계약 완료

밀리의서재
밀리로드
베스트 1위

뮤지컬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뽕송뽕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글빙글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글빙글 빨래방 (팩토리나인, 작가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제작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홍보마케팅 이제이컴퍼니 | 예매처 인터파크 | 문의 02-764-9102

선행 압류채권자가 우선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지급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56378 판결). 이는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가압류·압류된 이후에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경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선행 가압류·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2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에 상응하는 부분'만

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감소 내지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수익채권을 가지고('우선수익권'),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수익권').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위 법리를 명확히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위탁자의 수익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5억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이 추가지정된 사안에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의 수익채권으로 확정된 금원인 15억원에서 아무런 돈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위탁자가 5억원의 범위만큼 위탁자의 수익채권을 소멸,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위 사안에서는 2순위 우선수익권 지정 이후로 후행 압류·추심명령도 있었습니다. 2순위 우선수익자는 적어도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금원만큼은 본인에게 배당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후행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5억원 중 5억원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혼자 전액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나머지 10억원은 선행 및 후행 압류채권자가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2순위 우선수익자는 아무런 금원도 배당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에 따라 5억원에 관해선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맞지만, 5억원에 대해 선행 압류의 효력은 미칩니다. 선행 압류채권자가 5억원 전액을 혼자서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탁계약상 권리는 그 내용 자체가 복잡하고, 신탁계약상 권리가 가압류·압류되거나 그 권리에 질권이 설정되는 등의 경우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미리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바른

K뷰티의 날갯짓



이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최근 K뷰티 인기를 직접 체험하게 됐던 계기가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사거리에서 서울시청 방향으로 길을 건너 온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명동' 가는 길을 찾고 있었다. 길 안내 끝에, 그 외국인 가족에게 '명동'은 무슨 이유로 찾아가는지를 되물었다.

그들은 화장품 쇼핑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다. 가족 중 20대 자매라고 자기소개를 한 젊은 여성은 명동에 가면 한국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한 데 모여있어 여러 곳을 둘러보며 쇼핑하기 편하다고 들었다고 말을 이었다. 친구들에게 한국여행 기념으로 선물하기로 약속한 제품 목록도 보여줬다.

새로웠던 건 브랜드 종류와 다양성이었다. 각각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제품들은 마스크팩, 자외선 차단제, 클렌징 등으로 즐비했다. 마스크팩만 살펴봐도, 과거에는 날개 포장된 얼굴 전체를 덮어주는 마스크 시트 제품을 묶음으로 구매해 선물세트 만들었다면, 요즘에는 동그랗고 얇은 화장솜을 토너에 적셔 통에 담은 '패드' 제품이 등장했다. 마치 오이를 껍데기 썰어 얼굴에 올리는 오이마시지를 현대화시킨 것 같기도 하다.

색조 브랜드도 눈에 띄었다. 특히 메이크업을 위한 파운데이션 제품을 '쿠션' 형태로 내놓아 뷰티 혁신을 이뤄낸 것은 K뷰티가 원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뷰티 시장에서 '쿠션' 제품은 파운데이션 본연의 메이크업 기능에 간편함과 휴대성을 더해 소비자 인기를 끌고 있는데,

쿠션이 일상 속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국내 브랜드들은 해외 소비자 맞춤형 전략으로 제품 차별화에도 나섰다.

이밖에 국내 브랜드들은 자연주의 성분을 기반으로 한 비건 화장품, 뷰티테크를 실현한 뷰티 디바이스 등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세 따라 K뷰티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을 '명동'으로 이끌어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아마존은 '프로젝트 K뷰티 고 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한국 뷰티 브랜드가 온라인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lee236@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2일 (음 6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더욱더욱 여름철 감기를 조심해보자. 48년생 가족에게 일취월장할 기회가 온다. 60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해보자. 72년생 행동은 사고에 의해 지체당한다는데. 84년생 오늘 가벼운 산책으로 운동을 시작.
- 소** 37년생 아랫사람이 길을 터주니 해결 수월. 49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61년생 장황한 자기소개는 자괴감만 일어난다. 73년생 내일 부지런히 뛰지 않으면 오늘 움직여야 한다. 85년생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버릇을.
- 호랑이** 38년생 행복은 주변에 있으니 이웃을 잘 보살펴라. 50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62년생 투자인지 그냥 적선인지 잘 구분. 74년생 의미 있는 부여는 왜곡된 상황을 초래한다. 86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커진다.
- 토끼** 39년생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니 무슨 일이든 참여. 51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하다. 63년생 오늘은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도록 해라. 75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7년생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라.
- 말** 40년생 총연도 사람을 보기며 따라야 하는 법. 5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길도 물어서 가라. 64년생 소통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 76년생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으니 더욱더 분발해야. 88년생 주변에 인색하지 않도록 하자.
- 뱀** 41년생 확실한 의사 표현이 필요. 53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연락이 오니 마음이 기쁘다. 65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77년생 역마의 변화이니 두루두루 움직여라. 89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도 생각.
- 말** 42년생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허전하다. 54년생 배우자의 건강과 안부를 챙겨야 하는 날. 66년생 내키지 않는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상책. 78년생 영입은 적극적으로 행동 계야 건 성립. 90년생 복고풍을 따라가다가 지출만 늘어나게 된.
- 양** 43년생 입이 경솔하면 일을 망치기 쉽다. 55년생 밤을 이겨낸 자만이 찬란한 새벽을 볼 자격이 있다. 67년생 말을 해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 79년생 성실한 탓에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91년생 땀을 시작하기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 원숭이** 44년생 부적절한 관계는 망신살을 부른다. 5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진다. 68년생 멀리 있다고 소홀히 대하면 원망을 듣는다. 80년생 이직보다는 남아서 공부하도록. 92년생 연인에게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준다.
- 닭** 45년생 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외출도 자제를. 57년생 친구에게 좋은 일을 양보하고 가슴이 흐뭇하다. 69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고스란히 돌아온다. 81년생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해결 된다. 93년생 다가올 오늘 일이 나에게 달렸다.
- 개** 46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58년생 구슬수가 있으니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70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하자. 82년생 누구라도 자신의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94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진다.
- 돼지** 47년생 오늘까지 버틸 수 있으니 희망이 있다. 59년생 검은색 옷 입을 일이 생긴다. 71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전 얻어먹는다. 83년생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지지 않는다. 95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이



김상회의四季 밥은 하늘이다

밥은 하늘이다. 사람에게 밥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로부터 정치의 목적은 백성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공자는 백성을 잘살게 하는 걸 정치의 최고 덕목으로 꼽았다. 요즘 정말 밥이 하늘이 됐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다. 물가는 날마다 뛰고 월급은 오르지 않으니 월급은 그만큼 내린 꼴이요 월급이 내렸다는 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다는 말이다. 돈이 없으니 쓸 수 없고 쓰지 않으니 돈의 순환이 막힌다.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는 좋아질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게 정치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물가를 잡아서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해서 쓸 돈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 요즘 달걀 두부에 과일까지 먹는 건 사치라는 말이 우스개처럼 번지고 있다. 가격이 비싸다는 의미다. 달걀 두부가 어떤 식료품인가. 어느 가정에서나 부담 없이 먹던 식료품이 사치가 됐다. 과일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먹기 어려운 품목이 됐다. 오이 가지 같은 필수 식료품도 선뜻 살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먹을 거 안 먹고 아껴야 살 수 있다는 말은 1980년대까지 자주 나왔는데 21세기에 다시 그런 말이 여겨져서 들린다.

실질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소비를 확 줄일 수밖에 없으니 자영업자들도 죽을 맛이다. 재료비 원가는 올랐는데 손님은 적어지니 손실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 자영업자 폐업과 개인회생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현실을 잘 보여준다.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정치의 몫이다. 여당이고 야당이고 가릴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민생이 위기에 처했는데 여야가 무슨 상관인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쟁만 벌일 때가 아니다. 민생을 돌아보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신음이 얼마나 큰지 귀 기울여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결합형스도쿠 **결합형스도쿠110**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새로운 크리노의 열과정을 즐기세요

QR코드 스캔

할인도서

1	2	8	2	9	8	9	7	6
9	6	8	7	1	9	1	2	8
7	2	9	1	6	8	9	2	8
8	7	6	9	2	2	2	8	9
9	8	2	6	8	1	2	9	7
2	9	1	9	8	7	8	6	2
6	8	7	8	9	2	1	9	2
2	1	2	8	7	9	6	8	9
8	9	9	2	1	6	7	8	2

8								
6				9	2	1	8	
7	1							
3		1		7				
		2		5				
	2		3					4
				6		2		
5	2	8	7				3	
								9

1	6	9	8	2	8	9	7	2
9	8	7	1	6	2	8	2	9
2	2	8	9	7	6	1	2	8
6	7	1	2	9	7	2	9	8
8	8	9	9	7	2	2	6	1
2	9	2	8	1	6	7	8	9
7	9	8	2	8	1	9	2	6
8	1	2	6	2	9	8	9	7
9	2	6	7	9	8	1	8	2

metro 메트로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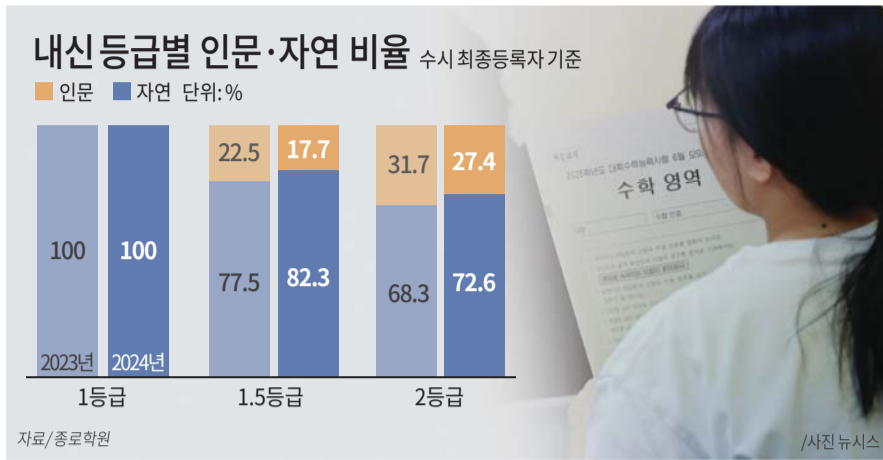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47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내신·정시 모두 '자연계열' 독식... 무전공으로 불균형 심화

종로학원, 대학 합격점수 분석
수시 내신 1등급 전원 자연계
1~4등급 전 구간서 격차 심화
인문-자연계 불균형 더 늘 것



지난 2024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자연계열 수험생의 독식 현상이 최상위권에서 두드러진 가운데, 4등급대까지 이어졌다. 수시 최종등록자 중 내신 '평균 1등급'을 받은 합격자 전원이 자연계열 학생인데 더해, 정시에서도 평균 백분위 점수가 가장 높았던 6명 모두 자연계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사실상 문·이과 관계없이 입시를 치르는 '무전공 학과'가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이공계열 수험생의 입시 우위가 심화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학이 공개한 학과별 수시모집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상위 70%' 점수를 기준으로 성적대별 인원을 산출한 결과, 고교 3년간 전 과목에서 1등급을 받아 '평균 1.0등급'을 나타낸 합격자는 81명으로, 모두 이공계열 학생으로 나타났다.

에 더 격차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1~4등급 전 구간대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다고 종로학원 측은 분석했다.

2024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상위 70% 학생 중 내신 평균 1.1등급으로 합격한 인원은 432명으로, 이 중 97%에 해당하는 419명이 자연계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문계열 학생은

13명(3.0%)에 그쳤다. 평균 1.2등급인 학생은 총 1089명으로 이중 998명(91.6%)이 자연계열이며, 1.3등급의 경우 1929명중 1808명(93.7%), 1.4등급은 2935명 중 2634명(89.7%)이었다.

1.5등급 이내 합격선에는 최종등록자 3976명중 3272명(82.3%)이 자연계열, 704명(17.7%)이 인문 계열이다. '2.0등급' 기준 1만212명 중 7415명(72.6%)이 자연계열, 2797명(27.4%)이 인문계열이다. 이어 등급별 자연계열 비율은 ▲2.5등급 68.7% ▲3.0등급 63.7% ▲3.5등급 62.0% ▲4.0등급 61.2%로, 4.0등급 이내 전구간대 자연계열 합격생 수가 인문계열보다 크게 앞서는 상황이다.

이전 년도인 2023학년도 입시에서도 동일 패턴을 나타냈지만, 2024학년도에는 더욱 심화한 모습이다. 정시모집에

서도 같은 추세를 보인다. 2024학년도 정시 학과별로 국어·수학·탐구영역 평균 백분위 점수 최고점(99.72점)을 받은 6명 모두 자연계열 학생이었다. 수능 '4% 이내'에 해당하는 1등급 구간대에 해당하는 국·수·탐 백분위 점수 평균 96.0점을 받은 2960명 중 2617명(88.4%)이 자연계열로, 인문계열은 343명(11.6%)에 그쳤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러한 점수 분포상으로 볼 때 이과에서 문과로 합격한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서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인문, 자연계열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대학, 학과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험생에게 문·이과 합격자 차지 비율 등 학과별 입시결과 공개 시보다 정밀한 자료가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디지털교육 전문교사 육성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 400여개 연수 지원
에듀테크·디지털교과서 등 내용 담겨

내년 3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직원에게 희망에 따라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상·수준·방식을 다양화한 입체적인 연수과정 400여개를 개발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전국 최초로 서울형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원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연수 체계도 2종을 개발해 22일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수는 교사, 학교 경영자 등 교원은 물론 교육을 지원하는 직원을 모두가 대상이다.

내용은 ▲에듀테크·AI·디지털교과서의 이해와 교육적 활용 ▲AI 윤리 ▲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 디지털 기술이 수업·평가로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수 설계 전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한 게 특징이다.

연수 수준은 ▲에듀테크 활용 수업 기술을 따라하며 익히는 기본(탐색) 단계 ▲학습한 기술을 활용해 직접 자신의 수업을 설계하는 활용(실천) 단계 ▲자신이 설계한 디지털 기반 수업을 상호 공유하고 성장하는 심화(평가·성찰) 단계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로서 동료 교원의 멘토가 되는 전문가(멘토링) 단계 등 네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연수 방식은 동·학년·동 교과 교사와의 연대를 통해 학교 단위의 변화를 촉진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이 외에도 ▲원격연수(마이크로 러닝 등) ▲거점형 대면 연수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연수 등으로 교사가 여건에 맞는 연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다.

또한 11개 교육지원청 등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400여 종의 연수를 현장의 교(직)원들이 쉽게 파악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체계도 2종을 개발·배포했다.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서울형 교원 역량 강화 체계 운영을 통해 도전하는 학습자로서의 교사가 더욱 많아 지기를 기대한다"라며 "많은 교원이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에 성균관대 선정

가천대 이어 두번째 컨소시엄 선정
반도체 인력양성·기술혁신 플랫폼

경기도가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로 성균관대 컨소시엄의 '경기도 반도체 인력양성·기술혁신 대학혁신 플랫폼'을 선정했다.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은 우수한 역량을 가진 대학과 연구기관, 협회·조합 등의 혁신기관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지난해 가천대 컨소시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장비 지원, 기술지도, 공정 개선 등의 현장 밀착형 기술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경기도형 대학혁신플랫폼'으

로 선정된 성균관대 컨소시엄은 성균관대를 주축으로 경희대·아주대·한국공학대·한양대ERICA가 참여하고 있다. 국내 손꼽히는 반도체 특성화 분야 연구 대학들이다.

성균관대 컨소시엄은 참여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공유·활용하고,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 연간 약 2500명의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시험 평가 인증, 공정 및 품질 개선, 마케팅 및 판로 지원해 기업의 혁신 성장도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30년 7월까지 6년간 성균관대 컨소시엄에 매년 10억 원씩,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한 내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인 지식·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서울시, 8호선 연장 앞두고 혼잡도 완화

별내선 개통 대비 비상대책 수립
평일 출근시간 예비열차 2회 운행

서울시는 다음달 10일 8호선 연장 별내선 개통에 대비해 혼잡도 완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별내선 개통시 남양주, 구리 쪽 승객 탑승으로 기존 운영 구간(암사~모란)의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예비열차 투입, 시내버스 노선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예비열차 투입과 증회 운

행을 추진해 8호선의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약 3대 이상의 열차 투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약 170~180%로 전망되는 혼잡도를 150%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암사역 출발 예비열차를 평일 오전 8시와 8시 18분에 2회 운행할 계획이다. 평일 기준 총 운행 횟수도 현재 하루 292회에서 324회로 최대 32회 늘린다. 특히 출근(아침 7~9시), 퇴근(밤 6~8시) 시간대에는 잠실역을 기준으로 각

5회씩 운행 횟수를 늘려 열차 1~2대 추가 투입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타 호선 예비열차 개조를 통해 1년 내 조기 증차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른 호선의 열차를 개조해 활용할 경우 신규로 열차를 제작하는 것보다 비용은 8분의 1, 기간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혼잡도 증가가 예상되는 8호선 암사역 주변 지하철도와 주요 지점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 1개를 신설, 지하철 이용 인원을 분산키로 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8 해질 / 19:49

7월 22일(월) 음력 : 6월 17일

수도권 날씨 25~29℃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4/29, 동두천 24/28, 가평 24/29, 파주 24/28, 서울 25/29, 양평 24/29, 인천 25/28, 수원 25/29, 용인 25/29, 평택 25/31, 백령도 23/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충격범, 드론으로 현장 조사... 원격 제어 폭탄도 준비” /사진 뉴시스
▲“미일, ‘대일 확장억제’ 첫 공동문서 정리 방침”

▲ 중국 스촨성에서 돌발 홍수..시신 8구 수습, 30여명 실종
▲ 이스라엘, 예멘 후티 호테이다항 보복 공습



▲ 美바이든, ‘사퇴’ 결단 네타냐후 방미 이후 될까 /사진 뉴시스
▲ 민주당 “바이든 이후”로 격돌... 해리스나 ‘미니 프라이머리’냐



끝 안보이는 장마
채소·과일 등
밥상물가 적신호
니



Life

LG전자
올레드 에보
소비자평가 1위
L4



행복한 아침 여는 호텔리어... “최상의 만족 선물하고파”



롯데호텔 서울 뷔페레스토랑 '라세느' 이은경 캡틴

호텔은 단순히 숙박 공간이 아니라 이용 고객에게 먹는 즐거움과 놀거리, 다양한 부대시설이 가득해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이다.

설레는 여행, 낯선 곳에서의 하루를 시작하는 조식,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즐기는 석식 등 식음 서비스는 호텔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메트로경제신문〉은 투숙객의 아침을 열어주는 롯데호텔 서울의 업스케일 뷔페 레스토랑 '라세느' 식음팀 이은경 캡틴을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 식음팀 이은경 캡틴이 매장 안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서울 소공동에 자리한 롯데호텔 서울은 명동, 을지로, 청계천 등 서울 중심 관광지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서울 관광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365일 연중무휴 외국인 여행객들의 방문이 이어지는데다 요즘 같은 여름 휴가철에는 호캉스를 즐기러 오는 내국인들도 많다.

호텔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바쁘겠지만, 그 중에서도 라세느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다. 롯데호텔 서울은 총 1015객실로, 주말 평균 조식시간 때에만 600~700명이 몰린다.

이은경 캡틴은 새벽 4시 30분 기상해 6시까지 호텔에 출근한다. 호텔 조식을 라세느가 담당하기 때문에 조식 시작 시간인 6시 30분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이은경 캡틴은 “조식 고객 응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호텔 직원이 ‘나’라고 생각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며 “바쁜 시간이지만, 투숙객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좋고 그런 것을 통해 에너지를 얻는다”고 말했다.

이 캡틴이 공과대학 졸업 후 호텔리어의 길로 접어든 건 사람들과의 소통이 즐거워서였다고. 대학교 3학년 시절, 그는 국제 학생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친구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교육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롯데호텔 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됐고, 2014년에 인턴으로 입사한 게 인연이 돼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이 캡틴은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이다보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했는데, 새하얀 도화지였기 때문에 경험을 잘 쌓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며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보통 호텔은 3교대 근무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강도 높은 업무로 서비스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비전을 갖지 않으면 근무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자녀까지 있는 워킹맘은 고충이 더 많을 터.

이 캡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려야 했다. 주변 친구들을 보니 회사 눈치를 많이 보는데, 우리 회사 팀 동료들은 가족처럼 축하해줬다”며



롯데호텔 레스토랑 식음팀 맡아
새벽에 출근해 조식고객맞이 준비
투숙객과 소통하며 에너지 얻어

공대 졸업 후 전공과 무관한 호텔로
사람과의 소통 좋아 호텔리어 선택
중국인 고객과 소통 위해 어학공부
100%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할 것



“육아휴직 제도와 복직 제도가 잘 갖춰져있어서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롯데호텔은 최장 2년의 남녀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여성에 대해서는 최장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자녀입학돌봄 휴직, 그리고 퇴직 후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라운하제’ 프로그램 등 전체 연령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식음팀에서 일하다보면 고객분들의 즐거운 날에 함께 하는 기분이 들어요. 돌잔치, 팔순잔치 등 집안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행사가 끝난 뒤 고객님들이 만족하면서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열심히 일했다는 뿌듯함과 만족감이 몰려와요.”

호텔 근무 초기, 중국인이 투숙객의 80~90%를 차지했을 때에는 중국어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애를 먹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위기는 어학 능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회사의 자기계발 교육 지원으로 중국어를 1년가량 배워 지금은 영어, 중국어 모두 막힘없이 고객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고객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 어학 능력까지 높게 된 것.

이 캡틴은 “서비스직이다보니 고객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고객의 입장에서 호텔 시스템을 더 만족할 수 있게 바꿔놓으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99명이 만족하고 한 명이 만족을 못한다면, 그 한 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고객이 만족하는 호텔 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쉬는 날에는 육아와 가정에 충실하는 한편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한다. 출산휴가 때 시작한 육아 블로그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지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콘텐츠 창작자로서 블로그에 올릴 내용을 고민한다고. 또 이러한 활동은 라세느 마케팅·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가 제 가치관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날마다 다르거든요. 호텔에서 근무하면서 여행객의 설레는 하루에 100%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노력할거예요.”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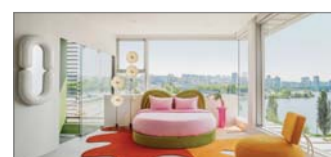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 입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이은경 캡틴.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두 번이나 아쉽게 골 기회 놓친 손흥민
...토틀넘은 QPR에 2-0 승리 /사진 뉴시스
▲황인범, 시즌 첫 경기부터 공격포인트
...즈베즈다는 4-0 대승

▲황희찬, 주장 완장 달고 프리시즌 첫
득점까지...팀은 3-0 승리
▲“몽처야” vs “공정성 부족” 축구인들까
지 의견 분분...축구협회 흥행보 선임 논란



▲플루티스트 이은미 독주회...세종문화회관체임버홀
▲한강대교 ‘스카이 스위트’ 운영 시작
...4일 만에 9월까지 완관 /사진 뉴시스